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ノダ」의 기능에 관한 고찰



2013年 2月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일어일문학과

이 진 경

문학석사 학위논문

# 「ノダ」의 기능에 관한 고찰

지도교수 손 동 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年 2月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일어일문학과

이 진 경

이진경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年 2月 22日



주심 최건식 (인)

위원 박영숙 (인)

위원 손동주 (인)

# 목 차

## \* Abstract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의 고찰 .....	3
2.1 선행연구의 흐름 .....	3
2.2 의미론적 의미·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	5
2.3 본질적 의미·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	6
3. 연구범위 및 방법 .....	9
3.1 연구범위 .....	9
3.2 연구방법 .....	10
II. 본론 .....	12
1. 「ノダ」의 정의(定義) .....	12
2. 吉田茂晃 분류의 문제점 .....	13

3. 「ノダ」의 기능 분류 .....	18
3.1 《やわらげ》의 첨가 .....	21
3.2 聞手-情報提示 .....	23
3.2.1 《換言》의 재정의 .....	23
3.2.2 《教示》의 재분류 .....	28
— 《情報提示》 《理由説明》 《先触れ》 —	
3.2.3 《強調》 .....	33
3.2.4 《主張》의 첨가 .....	36
3.2.5 《告白》 .....	38
3.3 聞手-情報要求 .....	40
3.3.1 《質問》의 첨가 .....	40
3.3.2 《確認》의 카테고리 재분류 .....	42
3.3.3 《働き掛け》의 첨가 .....	43
3.4 話手-情報提示 .....	49
3.4.1 《再認識》 .....	49
3.4.2 《発見》의 재분류 .....	50
— 《発見》 《気づき》 —	
3.5 話手-情報要求 .....	53
3.5.1 《自問》의 첨가 .....	53
3.5.2 《決意》의 카테고리 재분류 .....	54
3.6 그 밖의 기능 : 《客体化》와 《整調》 .....	56
3.7 기능별 비교 .....	57

4. 吉田茂晷 분류와 비교 .....	63
4.1 吉田茂晷 예문의 문제점 .....	63
4.2 吉田茂晷 분류와 차이점 .....	69
5. 프로트타이프론의 입장에서 본 「ノダ」 .....	73
5.1 문의 구조 내부에서 본 「ノダ」의 위치 .....	74
5.2 모달리티 내부에서 본 「ノダ」기능의 위치 .....	78
Ⅲ. 결론 .....	81
【참고문헌】 .....	83
【참고자료】 .....	83
【용례출전】 .....	85



## 표 목차

【표1】 吉田茂晃의 「のだ」 표현 효과 .....	5
【표2】 野田春美의 「のだ」 기능 분류 .....	8
【표3】 吉田茂晃의 표현 효과에 대한 정의(定義)와 예문(例文) .....	13
【표4】 《やわらげ》의 특징 .....	23
【표5】 《換言》과 《やわらげ-換言》의 특징 .....	26
【표6】 《やわらげ-情報提示》와 《やわらげ-先触れ》의 특징 .....	30
【표7】 《理由説明》과 《やわらげ-理由説明》의 특징 .....	30
【표8】 《強調》와 《やわらげ-強調》의 특징 .....	33
【표9】 《主張》과 《やわらげ-主張》의 특징 .....	36
【표10】 《告白》와 《やわらげ-告白》의 특징 .....	38
【표11】 《やわらげ-質問》의 특징 .....	41
【표12】 《確認》의 특징 .....	42
【표13】 대인행동의 유형 .....	46
【표14】 「持ちかけ系」의 대인행동 .....	46
【표15】 《働き掛け》의 특징 .....	47
【표16】 《再認識》의 특징 .....	49
【표17】 《発見》과 《気づき》의 특징 .....	51
【표18】 《やわらげ-自問》의 특징 .....	53
【표19】 《決意》의 특징 .....	55
【표20】 「ノダ」의 기능 비교 .....	62
【표21】 吉田茂晃 예문의 재분류 .....	68
【표22】 吉田茂晃 분류와 비교 .....	69
【표23】 기능의 재분류 .....	72

【표24】	모달리티의 상호 관계 .....	75
【표25】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와 발화·전달의 모달리티 .....	76
【표26】	발화·전달의 모달리티 .....	77
【표27】	모달리티 성격에 따른 기능의 분류 .....	79
【표28】	모달리티 내부에서 본 「ㄴᄃ」 기능의 위치 .....	80

### 그림 목차

【그림1】	문의 구조 내부에서 본 「ㄴᄃ」의 위치 .....	78
-------	-----------------------------	----



A study on the function of "Noda(ノダ)"

Jin Kyoung Lee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function of 「ノダ」.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what functions 「ノダ」 has beside explanation of reason, emphasizing, and euphemistic expression, and what places each function has.

About the functions of 「ノダ」, [expression structure] proposed by 吉田茂晃 (Yosida Sige Aki)(1988) was re-categorized, focusing on [intention of utterance] in terms of pragmatics. The number of the functions proposed by Yosida Sige Aki(1988) are 11, and they are characterized by the morphological definitions of 「一句一文」(one phrases into one sentence)and 「二句一文」(two phrases into one sentence). However in terms of pragmatics which consider important utterance intention of speakers and interpretation by listeners, it is difficult to indentify utterance intention by morphological definitions.

Therefore, in this paper, we don't make a morphological definition, and re-categorized the functions of 「ノダ」 to 12 categories according to intentions of speakers, considering the connections with previous contexts. Among the work of the new categorization, a new function of 《やわらげ》(yawarage) came out. Breaking down the properties of 《やわらげ》, we have 14 functions of

「ノダ」 in total. By discovering the function of 《やわらげ》, we could find out the existence of [euphemistic expression]. Certainly, we have the limits to analyze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but we think that the presentation of the function will have an important role to identify the nature of 「ノダ」.

Also, we found that [information representation] has the largest part among the features of 《やわらげ》. We assume that because of the reason above, the [modality of explanation] and its function have been represented as [explanation] in defining 「ノダ」 so far. However, it is not true that just some parts of the 「ノダ」's functions could be considered as the whole of 「ノダ」.

Then, in order to find out what places the functions of 「ノダ」 which appeared by re-categorization have in sentences, we examined the functions in terms of the prototype theory. First, we observed 「ノダ」 from view of [modality], then examined what places the functions of 「ノダ」 have within [modality]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We can see that 「ノダ」 is not an independent existence, rather a continuum in a line. 「ノダ」 with the nature of [explanation modality] can have the characteristics not only of [information system], also of [action system]. Besides, within [modality], 「ノダ」 can have different features according to whether the focuses are on [statement events] or [utterance and deliverance]. Therefore, the functions of 「ノダ」 can have different features according to where their focuses are on, and it can have the functions of [information representation] as well as [information demanding]. Accordingly, we can tell that 「ノダ」 has two functions largely, [information representation] and [information demanding], and the 14 functions by re-categorization are the characteristics of 「ノダ」.

As a result, 「ノダ」 has the functions of [information representation] and [information demanding], and it can have different features as a continuum, not as an individual, according to where their focuses are on.

# I. 서론

## 1. 연구목적

일본인들의 일상회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んだ」 「~んです」라는 형식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んですか」 「~んでしよう」 「~んじゃないません」 「~んなら~」 「~んだから~」 등의 형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회화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도 「~のだ」 「~のである」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1)~(4)는 「のだ」가 사용된 다양한 형태의 예문이다.

- (1) いくつか、ある人にこんなことを聞かれたことがあるんだ。(もう：10)
- (2) A: どうしたの? 退屈?  
B: いえ、ちょっとねむいんです。(文型：656)
- (3) A: どうしたんですか。元気がありませんね。  
B: ちょっと風邪なんです。(文型：656)
- (4) ふっと北海道のヒグマが頭をかすめるのである。(もう：13)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ノダ」<sup>1)</sup>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면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ノダ」 그 자체는 실질

---

1) 「ノダ」는 「~のだ」 「~のです」 「~んだ」 「~んです」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패턴의 총괄을 의미한다.

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 때문인지 「ノダ」의 기능으로 「이유(理由)설명, 강조(強調), 부드러운 표현(やわらげ)」만이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화에서 이 세 가지 기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표현들이 존재하며 이 세 가지 기능을 염두 해 두고 사용한 문장이라도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생긴다. (5)는 「前置き」의 기능을 (6)은 「言い換え」의 기능을 제시한 것이다. (7)의 경우 화자는 강조(強調)하려는 의도로 「んです」를 사용하였고, (8)의 화자는 예의바르게 말하려는 의도로 「んです」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7)과 (8)의 경우 모두 의도에 맞지 않는 표현 사용으로 비문(非文)이 된다.

(5) A : あのう、東京駅へ行きたいんですが、この道ですか。

B : ええ、ここをまっすぐ行って、…。→前置き (近藤安月子 2002 : 225)

(6) A : 大学行けるの？

B : だって無試験だもん。

A : へえ、じゃあ3年も遊んでられるんだ。

→言い換え (野田春美 1997 : 85)

(7) (ワークショップの最後に、一言ずつ感想を述べる場面で)

\*今日は、楽しかったんです。

→사용의도 : 強く言いたかった (藤城浩子 2007 : 172)

(8) (教員室に教師を訪ねて)

\*あの、すみません。大沢先生はいるんですか。

→사용의도 : ポライトに言った(藤城浩子 2007 : 172)

이와 같이 「ノダ」의 기능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또한 그 기능에 대해서 전체상을 알기 쉽고,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은 제시되고 있지 않

다. 이는 「ノダ」의 문제가 단순히 형식명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언어 형식과의 관련성에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ノダ」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문제가 되고 문의 분류, 부정과 의문 등의 스코프·포커스(스코프・フォーカス), 담화분석 같은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ノダ」의 본질적 의미로의 접근을 용이(容易)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ノダ」의 기본적인 기능 분석에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동향인 어용론(語用論)<sup>2)</sup>의 입장에서 「관련성이론(関連性理論)」을 토대로 「ノダ」가 「이유 설명, 강조, 부드러운 표현」 이외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의 고찰

### 2.1 선행연구의 흐름

「ノダ」의 연구는 형태론과 의미론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론의 연구는 「の」와 「だ」의 형태상의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정(断定)의 조동

2) 語用論：理論言語学の一分野で、言語表現とそれを用いる使用者や文脈との関係を研究する分野である。運用論ともいう。自然言語は一般に、発話された場面によって指示対象が変わる「あなた」「ここ」「明日」などの直示表現(ダイクシス)をもつ。また、例えば「すみません、今何時か分かりますか？」という発話は、形式の上ではyes/no疑問文であるが、意図されている内容は明らかに時刻を教えてほしいという依頼である。これらの現象が語用論の研究対象となる。

「ウイキペディア フリー百科事典」<http://www.ja.wikipedia.org/>

사 「だ」 「です」는 체언에 접속할 때는 그대로 접속하지만, 용언에 대해서는 「の」 또는 그 음편형 「ん」을 매개로 그 연체형에 접속한다. 이것은 명치(明治)시대 이후 구어(口語)문법의 연구에서 「ノダ」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식이다.<sup>3)</sup> 형태론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더 나아가 「ノダ」의 품사 명명(命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견(異見)이 있다.<sup>4)</sup>

의미론의 연구는 크게 「본질적 의미·기능」과 「의미론적 의미·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의미론적 의미·기능」이 「のだ」가 가진 기본적인 용법에 대한 분석이라면, 「본질적 의미·기능」은 기본적인 용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표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청자의 담화 해석이라든지, 종조사·모달리티<sup>5)</sup>·텐스<sup>6)</sup>·아스펙트<sup>7)</sup>등 여러 가지 문법 카테고리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형태상의 문제와 의미상의 문제를 따로 구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에 따른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는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sup>8)</sup>

3) 田野村忠温(1990) 『現代日本語の文法 I - 「ノダ」の機能と用法』 和泉書院 p.178

4) 佐治圭三(1972)는 준체조사(準体助詞) 「の」에 「だ」가 접속한 것으로, 寺村秀夫(1984)·野田春美(1997)는 조동사로 보고 있다.

5) モダリティ: 事柄·叙述内容、又は、話し相手に対する話し手の態度が一定の文法形式によって表現される時、それをムード、又は、モダリティという。

日本語教育学会(2002) 『日本語教育事典 縮刷版』 大修館書店 p.191

6) テンス: ある時の一点(基本的には発話時)を基準として、描こうとする事象がその時のことであるか、それより前か、あるいは、それより後かによって、言語形式(普通は動詞の形態)が一定の規則性をもって変化するとき、その言語はテンスをもつといい、その文法形式をテンスという。

日本語教育学会(2002) 『日本語教育事典 縮刷版』 大修館書店 p.189

7) アスペクト: あることがどんな状態にあるか、ある動作·作用がどんな過程にあるかの別をアスペクトという。

日本語教育学会(2002) 『日本語教育事典 縮刷版』 大修館書店 p.187

8) 野田春美(1997), 名嶋義直(2007)가 이에 속한다.

## 2.2 의미론적 의미·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

国立国語研究所(1951 : 174)는 「ノダ」가 「根拠のある説明、理由の提出、回想、二重判断、強調などの意を表す」라고 서술하고 있다.

久野暲(1973 : 143~149)은 「「ノ德斯」は、話し手が先に言ったこと、したこと、あるいは、話し手の状態に対する話し手の説明を与える。また「ノデスカ」は、話し手が見、聞いたことに対する聞き手の説明を求める」라고 설명하면서 화자의 발화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9) 風邪をひきました。雨に濡れたのです。(久野暲 1973 : 144)

→私が風邪をひいたことの説明は、雨に濡れたことです。

(10) 顔色が悪いですね。病気なのですか。(久野暲 1973 : 144)

→あなたが顔色が悪いことの説明は、病気であることですか。

吉田茂晃(1988)는 보다 포괄적으로 「のだ」의 기능을 정리하고 있다. 구조적 형태로는 협의의 「のだ」(句的体言+〈平叙·現在時〉述語化要素)로서 문(文) 내부의 표현 효과를 【표1】과 같이 11개로 분류하고 있다.

【표1】吉田茂晃의 「のだ」 표현 효과9)

二句一文			《換言》	
一句一文	聞手に伝える	聞手に 情報を提示する	話手にしか判らないことがらを	《告白》
			聞手が知らないことがらを	《教示》
			聞手が信じていないことがらを	《強調》
	話手が受けとめる	実現すべきことを 聞手に示す	話手のなすべきことがらを	《決意》
			聞手のなすべきことがらを	《命令》
			初めて知ったことがらを	《発見》
		忘れていたことがらを	《再認識》	

	その他の特殊なもの	相手の発見したことから	《確認》
		文章の調子を整える	《整調》
		主語の人称制限を中和する	《客体化》

益岡隆志(1991 : 140~150)는 「のだ」의 기능을 「説明説」로 파악하고 있다. 「説明」을 「設定された課題に解答を与えること」으로 규정하고, 크게 「課題設定」을 기준으로 「明示的文脈—背景説明、帰結説明」과 「非明示的文脈—背景説明、帰結説明」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각에 「叙述様式判断の説明」을 부가했다.

- (가) 背景説明 : 「事実文」による説明で、与えられた事態に対する理由や事情を述べるものである。
- (나) 帰結説明 : 「判断文」による説明で、与えられた文から何が帰結するかを述べるものをいう。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의미론적 의미·기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그 기능이 객관적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서술한다는 「설명」의 관점에서만 파악할 뿐 다각적인 면에서의 기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방법을 통해서 「のだ」가 가진 기능이 오로지 「설명」이라고 이해하기 쉽다.

### 2.3 본질적 의미·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

松岡弘(1987 : 14)는 「『のだ』は、ある事柄Pとある事柄Qとの間に話し手が何ら

9) 吉田茂晃(1988) 「ノダ形式の構造と表現効果」 『国文論叢15』 神戸大学文学部国語国文学会 p.52

かの関係を認め、そしてそれを話し手の責任において主張する時に用いられる」라고 서술하며 「関連づけ説」을 주장한다. 또한 P와 Q의 구체적인 관계에 관해서 「因果関係、対比、表裏」의 3종류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関連づけ」에 대한 정의(定義)가 모호하고 어디까지를 관련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

田野村忠温(1990: 5~8)는 「ある事柄aを受けて、aの内実はこういうことだ、aの背後にある事情はこういうことだ、といった気持ちで命題βを提出する」라는 「内実・背後の事情説」로 「のだ」의 본질을 파악하며 그 사용조건으로써 「承前性、既定性、披歴性、特立性」을 제시하고 있다.

- (가) 承前性：ノダ文の発話に際し、何らかの先行発話や状況が存在し、それを受けてノダが使用される場合が多いこと。
- (나) 既定性：提示する命題の真偽が話し手にとって既に定まったものであること。
- (다) 披歴性：提示する命題内容が聞き手によって容易に知り得ない内容のものであること。
- (라) 特立性：他の命題から提示する命題を際立たせるものであること。

또한 「のか」 「のだろう」 「のではない」 「のなら」 「のだから」 「のだった」 와의 관계 속에서 「のだ」가 가지는 기능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인과관계」나 「설명」으로 「のだ」의 본질을 파악한 「説明説」과 명확한 차이가 없다.

野田春美(1997)는 기능 분류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のだ」가 가진 본질과 연관을 지어 【표2】와 같이 가능한 간단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のだ」가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연속된 2개의 기능 「스코프의『のだ』」와 「ムード의『のだ』」를 가진 「多機能説」을 주장한다. 「스코프의『のだ』」

는 문(文)의 일부를 명사화(名詞化)하는 구문적인 이유로 사용하고, 「ムードの『のだ』」는 화자의 언표(言表)사태에 대한 태도와 청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표2】 野田春美의 「のだ」 기능 분류<sup>10)</sup>

	对事的ムードの「のだ」	对人的ムードの「のだ」
関係づけ	Pの事情・意味としてQを把握する	Pの事情・意味としてQを提示する
非関係づけ	Qを(既定の事態として)把握する	Qを(既定の事態として)提示する

또한 부정문·의문문의 「のだ」, 종속절 속에 나타나는 「のだ」, 「わけだ」·「ものだ」 등의 모달리티 표현과 관련성을 가지는 「のだ」도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선례(先例)의 「関係づけ」와 「既定の事態」를 기반으로 한 입장으로 용어의 애매함과 범위의 불명확함을 해결하지 못했다.

名嶋義直(2007: 3)는 어용론의 입장에서 「ノダは、ある命題を聞き手側から見た解釈として意図的に、かつ、意図明示的に聞き手に対して提示する」라고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聞き手側の解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달리티」 표현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のだ」의 변이형(変異形)에 대한 고찰과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텐스·아스펙트의 『タ』」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聞き手側の解釈」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0) 野田春美(1997) 『日本語研究叢書9 「のだ」の機能』くろしお出版 p.67

### 3. 연구범위 및 방법

#### 3.1 연구범위

「ノダ」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으로 「のだ」를 포함해서 회화체로 대표되는 「んだ」와 문장체로 대표되는 「のである」를 고찰의 범위로 한다.<sup>11)</sup> 이 세 가지 표현은 문체상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표현으로 간주한다. 단, 접속면에 있어서 「모달리티」 표현에 연이은 「のだ」「のである」「んだ」는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종조사나 모달리티가 붙은 경우는 그 앞부분까지만 분석의 범위로 한다. 이는 화자의 의도가 표현되는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순수한 「ノ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용례는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 「ノ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화체와 문장체로 대표되는 소설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수집한다. 소설은 『(新編)国語総合』·「沈黙」 『レキシントンの 幽霊』·「七番目の男」 『レキシントンの 幽霊』·『西の魔女が死んだ』에서, 애니메이션은 「千と千尋の神隠し」·「ハウルの動く城」·「耳をすませば」·「猫の恩返し」의 대본 작업을 통해서 확보하였다.<sup>12)</sup> 이 작업을 통해 「のである」는 50개, 「のだ」는 148개, 「んだ」는 320개로 총 518개의 예문을 얻었다. 하지만 실질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ノダ」의 앞뒤에 붙은 문법 카테고리를 제외한 순수 형태로 「のである」는 48개, 「のだ」는 133개, 「んだ」는 291개로 총 472개이다.

11) 「のだ」は話し言葉では「んだ/んです」の形をとることも多い。また、書き言葉では「のである」の形でも用いられる

日本語教育学会(2002)『日本語教育事典 縮刷版』大修館書店 p.389

12) 애니메이션의 대본은 필자가 영상물을 보면서 직접 대본 작업을 한 것이다.

의미론적 의미·기능의 고찰은 吉田茂晃(1988)를 기준으로 재분류한다. 나타내지 못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기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정의한다. 吉田茂晃(1988)의 표현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은 「ノダ」 연구자들이 인용한 기능이기도 하다. 이는 가장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 역시 이러한 이유로 吉田茂晃(1988)의 기능을 고찰의 범위로 삼고자 한다. 물론 이미 구체화되어 있는 분류를 「재분류」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것은 吉田茂晃(1988)의 분류가 「형태상의 규정」을 통한 분류로 「발화 의도」를 중시하는 어용론적 관점에서 보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분류」의 필요성은 있다.

### 3.2 연구방법

최근 「ノダ」의 연구 동향은 「관련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다.<sup>13)</sup> 「ノダ」 연구가 어떠한 흐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본고의 연구범위로 삼은 「의미론적 의미·기능」에 대한 선행연구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본론의 1장에서는 분석대상의 범위 설정과 용어해석에서 오는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ノダ」의 정의(定義)를 내린다.

2장에서는 吉田茂晃(1988)의 표현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재분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본고에서 중점을 둔 「ノダ」의 기능에 대한 고찰이다. 吉田茂晃(1988)가 제시한 「のだ」의 표현구조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재분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기준으로 나타낼 수 없는 「ノダ」의 기능에 대

---

13) 名嶋義直(2007)가 대표자이다.

해서 필자의 기준에 따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재분류한다. 재분류한 기능들의 특징은 「ㄴㄷ」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장에서는 吉田茂晃(1988)가 제시한 예문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것은 재분류와의 차이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이다.

5장에서는 「ㄴㄷ」가 문의 구조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모달리티 내부에서 어떤 성격으로 연속성을 나타내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장은 「ㄴㄷ」가 가진 기능들의 유사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II. 본론

### 1. 「のだ」의 정의(定義)

「ノダ」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のだ」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용 형태의 총괄을 나타낸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분석 대상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のだ」에 대해서 정의(定義)해 둘 필요가 있다.

「のだ」의 품사분류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즉 「のだ」는 명사화의 기능을 갖는 준체조사(準体助詞)<sup>14)</sup> 「の」에 「だ」가 접속해서 그것이 하나의 어(語)로서 사용된다는 것이다.<sup>15)</sup> 이것은 형용동사 활용어미와 단정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형태 분화가 시작된 이후인 에도(江戸)시대부터 사용된 형태상의 표현이다.<sup>16)</sup>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のだ」를 하나의 어(語)로 보기는 하지만, 그 기능은 준체조사 「の」가 가지는 「명사화(名詞化)」로 본다. 吉田茂晃(1988) 역시 이 견해를 바탕으로 「叙述の体言化」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의 입장은 「のだ」가 「一語化」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14) 準体助詞: 「の」(行くのは、私のを) 「ぞ」(だれぞ、何ぞ) 「から」(そうなったからは、向うへ着いてからが心配だ) 「ほど」(三つほどがちょうどいい)などで、学説によっては、格助詞·副助詞·接尾語·形式名詞などに分類され得るものであるが、これらが付いた場合に、その合わさった部分(行くの、着いてからは、体言と同じ職能をもっている。

日本語教育学会(2002) 『日本語教育事典 縮刷版』大修館書店 p.105

15) 野田春美(1997) 『日本語研究叢書9 「のだ」の機能』くろしお出版 p.12

16) 飛田良文 主幹(2007) 『日本語学研究事典』明治書院 p.453

기능이 준체조사「の」와 조동사「だ」가 가진 기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가 되어 그 자체로서 「모달리티」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이 견해는 野田春美(1997)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野田春美(1997)는 [準体助詞「の」+「だ」]에 가까운「のだ」(스코프의『のだ』)와 「一語化」되면서 성질이 변화한 「説明のムード」를 담당하는「のだ」(ムード의『のだ』)가 있다는 입장이다. 본고의 의견은 후자(後者)라고 볼 수 있으나, 「のだ」가 가진 용법이 「설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 「のだ」가 「説明のムード」의 범주 안에는 있지만, 「설명」이라는 용어에서 발생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のだ」를 「モダリティ的意味を生じさせる」<sup>17)</sup>라는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2. 吉田茂晃 분류의 문제점

吉田茂晃(1988)가 제시한 「のだ」의 표현 효과 분류는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재분류에 앞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吉田茂晃은 「のだ」의 표현효과에 대해 아래의 【표3】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각각 해당하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표3】 吉田茂晃의 표현 효과에 대한 정의(定義)와 예문(例文)

표현 효과	정의와 예문
《換言》	「～のは～のだ」の形をとって、述語句が主語句の内容の「言い換え」として働いている表現である。(ただ、中には句でなく語を

17) 名嶋義直(2005) 「ノダは「説明のモダリティ」か」 日本語教育研究集会 p.43

		主語とする形もあって、これは表面的な形は確かに語であるけれど、内容的には句に等しい) ① 皮膚が荒れているのはビタミンが不足している <u>のだ</u> 。 ② 太陽の光は、水素が核融合反応を起している <u>のだ</u> 。
聞 手 に 伝 え る	《告白》	ことがらの性質として話手だけが知っているはずの情報を聞手に提出する表現である。 ③ ごめんなさい、ガラスを割ったのは僕なんです。 ④ 止めないでくれ、わたしだって <u>幸いのだ</u> 。
	《教示》	聞手が知らないことが確実であると思われる情報を話手が提出する表現である。 ⑤ お月様ではねえ、ウサギさんがおモチをついている <u>んだ</u> 。 ⑥ 御覧ください。この工程はすべてコンピュータによって制御されているのです。
	《強調》	聞手が(一度は聞いていながら)まだ納得していない情報を話手が再び提出する表現である。 ⑦ 信じてくれ、俺は確かにUFOを見た <u>のだ</u> 。 ⑧ 評論家が何と言おうとこの映画は面白い <u>んだ</u> 。
	《決意》	話手自らが或ることがらを将来実現させようと考えていることを聞手に伝える表現である。 ⑨ それでも、私はこれを成し遂げる <u>のだ</u> 。 ⑩ 俺は行くぞ。行くと言ったら行く <u>んだ</u> 。
	《命令》	将来あることがらを聞手をして実現させたいと話手が考えていることを、他ならぬ聞手に向って指定する表現である。 ⑪ 立て、立て! 立つんだ、ジョー! ⑫ 危ないから、僕が合図をするまでじっとしている <u>んだ</u> 。
話 手 が 受 け と め る	《発見》	新しく知ったことがらについて納得したことの表現である。 ⑬ (辞書を調べて) そうか、「知音」というのは、「親友」のことなんだ。 ⑭ ははあ、あいつめ自分だけ逃げるつもりなんだ。
	《再認識》	以前知っていてしばらく失念していたことがらを思い起し、再び納得したことの表現である。 ⑮ しまった! 銀将は真横へは進めない <u>んだ</u> 。 ⑯ すっかり忘れてたなあ。あいつは阪神ファンなんだ。
	《確認》	聞手に関することがらについて聞手本人の目の前で自ら納得して見せて、そのことを以て聞手への確認ともする表現である。 ⑰ へえー、じゃあキミはひとり <u>っ</u> こなんだ。 ⑱ あー、そうなんだ。

その他の特殊なもの	《整調》	本来は《強調》あるいは《教示》であったのであろうが、期待された表現効果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ず、あたかも単に語調を整えているだけであるかのように見え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ものである。 ② 或いは、「合意とは一九〇五年の『保護条約』を指す」と主張するかもしれない。だがそれこそ事実誤認なのである。
	《客体化》	日本語がもつ特殊性があるのに、「のだ」形式によって主語の人称制限が取り払われたように見えるものである。 ③ あの人だって悲しいのよ。

【표3】에서는 ⑬~⑮에 해당하는 예문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ノダ」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으로 「決意·命令」의 예로써 제시되고 있다.<sup>18)</sup>

다음은 吉田茂晃(1988) 분류의 문제점이다. 吉田茂晃(1988)가 제시한 표현 효과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을 형태상 <一句一文> 과 <二句一文>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의 발화 의도와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문장을 바라볼 때 한 문장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ノダ」형식의 범위를 「のだ·のである·のだった·のか·のさ·のよ…」 등 「の」를 사용한 술어의 모든 형태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단순히 「の」가 사용된 형태라면 모두 「ノダ」형식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형태들이 모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のだ·のである·のだった·のか」는 「のだ」의 활용형이라고 해도, 「のさ·のよ」는 「のだ」의 활용형이라기보다 종조사 「の·さ·よ」의 결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現代日本語文法4』에서는 전달에 관계되는 종조사 「さ·よ」와

18) · ⑬ : やだよ! 僕、もう帰る。

· ⑭ : なにをグズグズしてるんだ。言われたことをさっさとやる。

· ⑮ : わかったんならもう僕の邪魔をしないこと。

吉田茂晃(1988) 「ノダ形式の構造と表現効果」 『国文論叢15』神戸大学文学部国語国文学会 p.52

종조사에 상응하는 형식으로서 「の」를 제시하고 있다.<sup>19)</sup> 이 3가지의 표현은 결국 종조사로서의 기능을 가진 전달태도의 모달리티<sup>20)</sup>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는 「のだ・のである・のだった」와 달리 각각의 성격을 지닌 표현의 결합인 「のさ・のよ」는 형태상의 결합, 의미상의 특징, 모달리티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10) 私、明日は来ません。用事があるんです。

→설명의 모달리티 「のだ」 / 이유설명 (現代 2003 : 195)

(11) あの方には娘が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の。

→전달의 모달리티 「の」 / 정보제시 (現代 2003 : 272)

(10)은 설명의 모달리티<sup>21)</sup>인 「のだ」가 사용된 문장이다. 여기에서 「のだ」는 상대방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1)은 종조사에 상응하는 「の」로 주로 정중표현에 접속하지만, 보통체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の」는 「のだ」에서 「だ」가 탈락한 형태로 기능의 차이는 없다. 단지 정중체에 접속하느냐 보통체에 접속하느냐의 차이가 「のだ」에서의 탈락이나 종조사에 상응하는 표현이냐로 나뉜다는 의견이다.<sup>22)</sup> 하지만 정중

19) 終助詞には、伝達に関わる「よ」「ぞ」「ぜ」「さ」「わ」、確認・詠嘆に関わる「ね」「な」「なあ」「よね」がある。さらに、「とも」「もの」(「もん」)「の」「つけ」「ってば」のような終助詞相当形式もある。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2003)『現代日本語文法4』くろしお出版 p.239

20) 伝達態度のモダリティ：話し手がその文をどのように聞き手に伝えようとしているかに関わるモダリティである。普通体と丁寧体の選択による丁寧さのモダリティと、終助詞によって表される伝達態度のモダリティからなる。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2003)『現代日本語文法4』くろしお出版 p.229

21) 説明のモダリティ：文と先行文脈との関係づけを表すもので、おもに「のだ」「わけだ」によって表される。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2003)『現代日本語文法4』くろしお出版 p.189

22) 「の」は丁寧体の述語の非過去形・過去形に接続する。普通体にも「の」が接続することがあるが、これは「のだ」の「だ」が脱落した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の」の機能は、「のだ」と変わらな

체에 접속한 것 자체가 이미 「정중의 모달리티」를 사용한 것인데 거기에 다시 「の」를 사용한 패턴이므로 전달의 의도가 하나 더 부가된 셈이다. 따라서 두 가지는 단순히 어디에 접속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달상의 의도가 달라진 것이기에 같은 표현이라 볼 수는 없다.

(12) 先日、学生時代のお友達にばったり会ったんですの。

→전달의 모달리티 「の」 / 정보제시 (現代 2003 : 272)

또한 (12)의 경우는 같은 종조사에 상응하는 「の」이지만, 이미 「んです」라는 「설명의 모달리티」 접속하였기 때문에 의미상 2번의 전달 의도가 부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요전에 친구를 만났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조(語調)를 정돈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다.

(13) あ、切符が落ちましたよ。

→전달의 모달리티 「よ」 / 주의환기 (現代 2003 : 242)

(14) A : 私の誕生日、覚えてる?

B : 覚えてるさ。

→전달의 모달리티 「さ」 / 당연성 설명(現代 2003 : 250)

(13)은 종조사 「よ」로 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태를 환기시켜주는 표현이고 (14)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각각의 표현은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吉田茂晃가 제시한 (15)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

い。丁寧体の述語に接続するという点で、「のだ」と区別されるだけである。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2003)『現代日本語文法4』くろしお出版 p.272

(15) a. あの<sup>だ</sup>って<sup>て</sup>悲しい<sup>の</sup>よ。

→전달의 모달리티 「のよ」 (吉田茂晃 1988 : 51)

b. あの<sup>だ</sup>って<sup>て</sup>悲しい<sup>の</sup>。

c. あの<sup>だ</sup>って<sup>て</sup>悲しい<sup>よ</sup>。

(15)의 a는 전달의 모달리티 「の」와 「よ」가 결합된 상태이다. b와 같이 「の」까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보면, 제3자의 심리상태를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정보제시의 문이 된다. 그런데 c와 같이 「よ」만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 정보의 제시가 아니라 상대방이 깨닫고 있지 못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주의 환기의 기능을 하게 된다. 같은 정보의 제시라 할지라도 화자의 의도가 강한 표현이 「よ」임을 알 수 있다. 즉 제3자의 심리상태를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단순히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대방에 대한 답답함까지 나타내는 문장이다. 따라서 이유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는 설명의 모달리티 「のだ」와 화자의 발화 의도까지 포함하는 전달의 모달리티 「のよ」는 같은 「ノダ」형식으로 볼 수는 없다.

### 3. 「ノダ」의 기능 분류

吉田茂晃(1988) 분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태상의 규정이다. 본고에서는 형태상의 규정을 짓지 않고 「어용론적 관점」에서 「발화 의도」를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발화 의도로 기능을 분류한 이유는 (16)처럼 같은 표현이지만, 발화 의도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 (16) 雫 : もう! 本当になににふいわねっ! 夕子はね、あんたのことが好きなのよ。  
 杉村 : え? そんな。俺、こまるよ。  
 雫 : こまるって、かわいそうなのは夕子よ。  
 ショックうけて休んじゃったんだから。  
 杉村 : だ...だって...俺...、(가)お前が好きなんだ!  
 雫 : え...? や...やだっ...。こんな時、冗談いわないで。  
 杉村 : 冗談じゃないよ! ずっと前から(나)お前のことが好きだったんだ! (耳)

(16)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장면이다. (가)는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청자에 대한 감정을 밝히는 부분이고 (나)는 청자가 믿지 않는 화자 본인의 감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결국 두 예문 모두 청자의 발화 해석은 화자가 어떤 의도로 발화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진다.

또한 종조사나 모달리티가 붙은 경우에는 「ノダ」기능의 분석 범위를 그 앞부분까지로 설정을 했는데 이것도 발화 의도와 관계가 있다.

- (17) 雫 : わっ...! よくできてる! ドワーフですね。  
 地球屋主人 : よくご存知だ。  
 そうか、お嬢さんはドワーフを知っている人なんだね。  
 → 《気づき》+ 確認 (耳)
- (18) 千尋 : あの、名前ってここですか?  
 湯婆婆 : そうだよ。もうぐずぐずしないでさっさと書きな!  
 まったく……つまらない誓いをたてちまったもんだよ。  
 はたらきたい者には仕事をやるんだなんて…… 書いたかい?  
 → 《教示-情報提示》+ 不満 (千)

(19) 千 : ……んっ……ん……。

リン : おかしいな…ああ、あったあった。ん? おい、どうしたんだよ?  
しっかりしろよ。

女 : うるさいな。なんだよリン?

リン : 気持ち悪いんだって。新入りだよ。→《告白》+ 伝聞(千)

(17)은 화자가 상대방의 발화 내용을 듣고 ドワ-フ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여기서 종조사「ね」<sup>23)</sup>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면 화자의 새로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넘어 청자에게 ドワ-フ를 알고 있었냐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 발화 의도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 (18)의 경우는 화자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를 나타내는 도리타테 조사「なんて」<sup>24)</sup>를 넣어서 생각하면 규칙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평가의 의도가 부가된다. (19)는 청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화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런데 전문(伝聞)의「そうだ」와 유사표현인「って」<sup>25)</sup>를 포함하면,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んだ」까지만 생각하면, 직접적인 정보의 제시가 되

23) 「ね」は付加された文が表す内容を、心内で確認しながら、話し手の認識として聞き手に示すという伝達機能をもっている。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2003)『現代日本語文法4』くろしお出版 p.256

24) ・ 評価を表すとりたて助詞：とりたてた要素に対する話し手の何らかの評価を表すものである。

評価を表すとりたて助詞には、「なんか」「なんて」「など」「くらい」がある。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2009)『現代日本語文法5』くろしお出版 p.119

・ なんて：予想外として不満の意を表す述部を省略した、終助詞的な用法がある。

日本語教育学会(2002)『日本語教育事典 縮刷版』大修館書店 p.407

25) 「って」「だって」「んだって」は、話し言葉でのみ用いられる。このうち、「んだって」は、文体的な特徴の違いを除けば、「(する)そうだ」とほぼ同じように用いることができる。「って」は、どのような発言があったかということを伝える形式であり、伝聞というより引用に近く、動詞の命令形や丁寧形などの聞き手めあてのモダリティ要素に接続したり、情報源を主語として表すことがある。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2003)『現代日本語文法4』くろしお出版 p.176

지만「って」를 포함하면 그 정보가 누군가에게 들은 간접 정보가 되어 버린다.

이처럼 발화 의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발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발화 의도, 청자의 발화 해석, 장면에 대한 이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발화 주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발화 의도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하위분류로 화자와 청자를 상정하고, 발화 의도는 크게 2가지 情報提示와 情報要求로 살펴본다. 2개의 큰 틀 속에서도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기능이 변화 하는 것」과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기능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 살펴본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ノダ」의 유·무에 따라 발화 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ノダ」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ノダ」가 그 기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검증 방법을 고찰하고 吉田茂晃(1988)가 제시한 예문들을 재분류 해 보고자 한다.

### 3.1 《やわらげ》의 첨가

앞의 예문 (16)의 (가)와 (나)는 발화 의도가 다르다. 그런데 (16)의 (가)는 「んだ」가 사용되기 앞부분인 「お前が好きだ」에서 이미 발화 의도인 《告白》을 느낄 수 있다. 선행 문맥을 파악해 보아도 그 의도는 바뀌지 않는다. 이처럼 원 문장 자체가 발화 의도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 경우 「ノダ」의 유무(有無)에 상관없이 발화 의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런 문장에서의 「ノダ」가 가지는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やわらげ》로 「ノダ」의 기능을 나타내고자 한다.

《やわらげ》라는 개념은 「ノダ」와 마찬가지로 추상도가 높은 표현으로

정확한 정의를 하지 않으면,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やわらげ》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やわらげ》를 사용한 학자들의 의견이다.

(가) 仁田義雄(1992 : 7) 「婉曲表現」の二要件

- ① 話し手は言表事態の成立が真であると認識している。
- ② 言表事態の成立が未だ確認されていないところを有するものとして表現されている。

(나) Kekidze Tatiana(2003 : 293) 「やわらげ」

話者は、断定しようと思えば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表現の強さを避けるためにあえて非断定的な表現を選ぶという方策である。

본고에서는 의미적으로 위의 의견들을 수용하지만, 「발화 의도」의 관점에서 《やわらげ》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 《やわらげ》의 정의

표현상 「ノダ」를 제외한 원 문장에서 발화 의도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ノダ」를 《やわらげ》로 분류한다.

《やわらげ》의 가장 큰 특징은 「ノダ」를 제외한 원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발화 의도를 알 수 있다. 때문에 선행 문맥을 확인하지 않아도 발화 의도는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내용의 흐름상 「ノダ」가 사용된 문장에서 선행 문맥에 대한 흐름의 연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행 문맥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지금까지 살펴본 《やわらげ》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やわらげ》의 특징

「ノダ」 기능	《やわらげ》
구조	《발화 의도》문장 + 「ノダ」
특징	·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기능이 변화하지 않음 ·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없음
검증방법	문장 자체에 직접적으로 발화 의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음

## 3.2 聞手-情報提示

### 3.2.1 《換言》의 재정의

吉田茂晃(1988)의 《換言》은 (20)처럼 형태상 〈二句一文〉 「~のは~のだ」의 패턴을 취하면서 주어구(主語句)와 술어구(述語句)가 「の」로써 명사화되어 주어구(主語句)를 바꿔 말했을 때 술어구가 되어야 한다. 즉 주어구인 「皮膚が荒れている」와 술어구인 「ビタミンが不足している」의 위치를 바꿔도 문장이 성립한다. 또한 (21)처럼 「~のは~のだ」의 형태가 아닌 표현도 있지만, 이것 역시 이미 주어구 「太陽の光」가 「太陽の光ということ」로 충분히 주어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형태상의 문제로 기능을 한정지을 수는 없다. (22)는 吉田茂晃(1988)가 제시한 《換言》(21)과 같은 패턴으로 〈二句一文〉의 「주어+のだ」의 형태이다. 즉 표면적인 형태는 「お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おれということ」를 표현하고 있어 이미 주어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3)은 (22)의 전·후(前後)문맥을 제시한 경우이다. 앞 내용과의 흐름상으로 보아 (23)의 「のだ」는 화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상황과 그로부터 나타난 감정을 청자에게 말하는 문장으로 《告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吉田茂晃(1988)가 제시한 《発見》(24)의 경우도 형태는 「~のは~のだ」를 갖는 《換言》이다. 「辞書を調べる」라는 상황 설정이 없었다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된다.

주어구

술어구

(20) 皮膚が荒れているのはビタミンが不足しているのだ。

: ビタミンが不足しているのは皮膚が荒れているのだ。

→ 《換言》(吉田茂晃 1988 : 48)

주어구

술어구

(21) 太陽の光は、水素が核融合反応を起しているのだ。

= 太陽ということは、水素が核融合反応を起しているのだ。

: 水素が核融合反応を起しているのは太陽の光なのだ。

→ 《換言》(吉田茂晃 1988 : 48)

주어구

술어구

(22) 「おれは、独りぼっちなのだ」

= おれということは、独りぼっちなのだ。

: 独りぼっちなのはおれなのだ。→ 《換言》(猿 : 142)

(23) 私は、この場所から立ち去ろうと思った。

「おれは、知らなかったものだから」

「いいのだよ。かまわないのだよ。おれは、独りぼっちなのだ。今から、ここを二人の場所にしてもいい。だが、もう枝を折らないようにしろよ」

→ 《告白》(猿 : 142)

(24) (辞書を調べて) そうか、「知音」というのは、「親友」のことなんだ。

→ 《発見》(吉田茂晃 1988 : 50)

「のだ」는 〈二句一文〉에 「~のは~のだ」라는 형태상의 규정을 지어버리면 그 기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발화 의도」를 중시하는 어용론의 관점에도 벗어나는 것이고 한 문장으로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형태상의 규정은 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吉田茂晃(1988 : 47)는 「「一致」という言い方をすれば、それは主語句と述語句の間に偏らずに在るものであるが、この「一致」をより作用的な述語句の方に引き付けて、術語句が主語句の内容の「言い換え」として働いていると考えることもできよう。話手の意識の問題として言えば、むしろ「言い換え」こそが目的なのであって、「一致」はそれを表現するための手段であるとさえ言い得る」라고 《換言》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형태상의 규정을 지어 말하기 때문에 「言い換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청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태상 「言い換え」를 사용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換言》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앞·뒤 문장의 연관성을 가지고 바꿔 말하거나 다른 각도에서 서술 하거나 하는 표현이다. 또한 앞문장의 요약으로써 뒷문장을 제시할 수도 있다.<sup>26)</sup>

(25) でも、この「様子を見る」という行為は、(持ち株ヲ)売るべきか持続すべきか決断を下すことを先送りするのに使われがち。要するに、優柔不断をカムフラージュする役目をさせているのです。

→ 《換言》(田野村忠温 1990 : 19)

(26) 気持で感謝すれば形はどうでもよいと言うのは暴言です。形が人の心を養う

26) 田野村忠温(1990 : 19)은 「β가, α를言い換えたり、別の角度から述べたり、要約したりするものであることも多い」 「先行文脈の内容を受けて、「言い換えると~」「つまり~」「要するに」といった気持で解説や要約を提出するわけである」라고 설명하면서 《換言》을 정의하고 있다.

のです。養われた心から形が生まれてくるのです。

→ 《換言》(田野村忠温 1990 : 19)

(25)와 (26)은 같은 《換言》이지만, 다른 패턴으로 사용되었다. (25)는 「要するに」를 사용해서 뒷문장이 앞문장의 《換言》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26)은 문장의 형태상으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의미상 《換言》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5)는 「ノダ」를 제외한 원 문장 자체가 《換言》이기 때문에 선행 문맥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26)의 경우는 원 문장이 정보를 제시하는 문장이기에 정말 《換言》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ノダ」를 붙여도 《換言》의 발화 의도는 느낄 수 없다. 때문에 선행 문맥을 통하여 《換言》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換言》과 《やわらげ-換言》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5】 《換言》과 《やわらげ-換言》의 특징

「ノダ」 기능	《換言》	《やわらげ-換言》
구조	《情報提示》문장 + 「ノダ」	《換言》문장 + 「ノ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기능이 변화함</li> <li>·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기능이 변화하지 않음</li> <li>·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없음</li> </ul>
검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한 부분 발화 의도 파악</li> <li>②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 파악</li> <li>③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문맥과의 관계 파악</li> </ul>	<p>문장 자체에 「つまり、要するに、言い換えると」와 같이 《換言》임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있음</p>

	④ 발화 의도가 변화할 때 「ノダ」 를 제외하고 《換言》임을 직접 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표현인 「つまり、要するに、言い換える と」를 넣어서 앞·뒤 문장이 성 립하면 《換言》	
--	---	--

발화 의도를 검증하는 절차는 이후 제시될 기능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やわらげ》에서 제시된 「직접적 요소」로 검증 작업을 거친다.

- (27) おじいちゃんは、昔、ミッション系の私立中学の理科の教師をしていた。そこで英語の教師として赴任してきたおばあちゃんと出会い、結婚したのだ。  
 …おじいちゃんとおばあちゃんが出会わなければ、ママは生まれず、自分も今ここにいないのだ、いや、そもそも、おばあちゃんが、日本に来ようと思わなければ…と、考えてまいは、なんだか不思議な気がした。

→ 《換言》(西：33)

⇒検証法：おじいちゃんは、おばあちゃんと出会い、結婚した。言い換えると、おじいちゃんとおばあちゃんが出会わなければ、ママは生まれず、自分も今ここにいない。

- (28) 下人は、六分の恐怖と四分の好奇心とに動かされて、暫時は呼吸をするのさえ忘れていた。旧記の記者の語を借りれば、「頭身の毛も太る」ように感じたのである。→ 《やわらげ-換言》(羅：35)

- (29) ハル：もう！やんなっちゃう。おかげで遅刻してみんなの前で恥かいて。

町田君にも笑われるし。

ひろみ：笑ってたねえ。

ハル：どうして？ 一体何をまちがったわけ？

ひろみ：うん...これはもう何かの前兆だね。

もっと恐ろしいことがこれから始まるんだよ。→《換言》(猫)

⇒検証法：これはもう何かの前兆だ。つまり、もっと恐ろしいことがこれから始まる。

(27)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화자 자신도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을 본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있다. (28)은 화자의 공포와 호기심의 감정을 기자의 말을 빌어 나타내고 있다. (29)의 경우는 현재 일어난 사건이 앞으로의 전조(前兆)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추상적 개념인 ‘전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 3.2.2 《教示》의 재분류

#### — 《情報提示》 《理由説明》 《先触れ》 —

吉田茂晃(1988 : 48)는 《教示》를 「聞手が知らないことが確実であると思われる情報を話手が提出する表現であ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30)의 (가)~(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0) まいとショウコは、この夏休みを共同研究の野鳥観察に費やして以来、暇を見つけては、杖指山や杖指山野鳥の森公園に鳥を見に出かけていた。(가)今の季節のビッグイベントである、雄大なサシバの渡りが、ちょうど杖指山上空にかかるというので、二人で見に行こうと前から申し合わせてあったのだ。→《やわらげ-理由説明》

でも、まあ、しょうがない。行ったって、渡りが見られる確率は五分五分だっただろうし、まいはもともとずっと小さな鳥が好きだった。(나)サシバの渡

りに固執していたのはむしろショウコの方だったのだ。

→ 《やわらげ-情報提示》

そのショウコがこんな有様なんだから。平気な顔をして横を歩いているショウコを、まいは少し非難がましく見つめた。(다)立てたプランがだめになるとい  
うのは、まいにはストレスフルなことなのだ。 → 《理由説明》(西：200)

(30)의 (가)~(다)는 청자가 모르는 정보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성격인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는 문장 속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매’의 이동을 보러가게 된 연유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나)는 ‘매’의 이동을 보고 싶어 한 것이 화자가 아닌 상대방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듯이 쳐다보게 된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즉 「情報提示」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발화 의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것들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 된다. 이번에는 (31)의 경우이다.

(31) 蛙男: におう、におう。うまそうなにおいだ。おまえなんか隠しておるな。

正直に申せ!

リン: このにおいでしょ。

蛙男: 黒焼き! ……くれっ!

リン: やなこった。お姉さま方に頼まれてんだよ。→ 《理由説明》(千)

「お姉さま方に頼まれてんだ」는 문장만을 보면 상대방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되지만, 앞 문장을 포함한 상황과의 관련성에서 살펴보면 린이 도롱뇽 구이를 가지고 있게 된 연유를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다. 즉 발화 의도라는 것이 상황과의 관련성에서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화 의도에 따라 《教示》는 세분 되어야 한다. 청자에게 지식의 전달이나 여러 가지 상황·배경 설명 등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목적인 「情報提示」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인 「理由説明」으로 세분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제시할 정보에 대해 예고함으로써 청자에게 지식 습득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先触れ」가 있다. 그럼 이 기능들의 특징을 【표6】 , 【표7】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6】 《やわらげ-情報提示》와 《やわらげ-先触れ》의 특징**

「ノダ」 기능	《やわらげ-情報提示》 《やわらげ-先触れ》
구조	《情報提示》문장+「ノダ」
특징	·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기능이 변화하지 않음 ·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없음
검증방법	문장 자체가 《情報提示》와 《先触れ》임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있음

**【표7】 《理由説明》과 《やわらげ-理由説明》의 특징**

「ノダ」 기능	《理由説明》	《やわらげ-理由説明》
구조	《情報提示》문장+「ノダ」	《理由説明》문장+「ノダ」
특징	·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기능이 변화함 ·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있음	·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기능이 변화 하지 않음 ·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없음
검증 방법	①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된 부분 발화 의도 파악 ②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 파악 ③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문맥과의 관계 파악	문장 자체에 「なぜかという、ので、から」와 같이 《理由説明》임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있음

	④ 발화 의도가 변화할 때 「ノダ」를 제외하고 《理由説明》 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 는 표현인 「なぜかという、の で、から」를 넣어서 앞·뒤 문장이 성립하면 《理由説明》	
--	--	--

《教示》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은 《情報提示》문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발화 의도는 제각기 다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다른 기능에 비해 《教示》의 기본인 《情報提示》가 특이한 점은 문장 자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ノダ」의 역할은 《やわらげ》만 존재한다. 청자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 전달할 때 단정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자칫 강한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기에 상대방을 배려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先触れ》역시도 《情報提示》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숨 고르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능 역시 《やわらげ》로 연결될 수 있다.

(32) そうやってできたたくさんの瓶詰のジャムは、日常使うほか、棚の奥にしまわれておばあちゃんが人を訪問するときの手土産になったり、まいたちが遊びにきたときのプレゼントになったりするのだ。

→ 《やわらげ-情報提示》27) (西: 47)

(33) すみてるは立ち上がろうとして失敗し、倒れた時、ももに激しい痛みを感じた。竹の切り株が刺さったのだ。彼は一瞬意識を失った。

→ 《理由説明》28) (ナガサキ: 205)

⇒確認法：ももに激しい痛みを感じた。なぜかという、竹の切り株

27) 情報提示文：自分は事実を把握しているが、相手はそれを十分に認識していないというギャップの意識が、ノダによって示し出される。  
 藤城浩子(2007)「ノダによる「強調」「やわらげ」の内実」『日本語文法』7-2 日本語文法学会 p.176

が刺さった。

- (34) 静かに緊張が高まりながら、やがて水受けがいっぱいになると、シーソーはぐらりと傾いて水をこぼす。緊張が一気にとけて水受けが跳ね上がる時、竹が石をたたいて、こおんと、くぐもった優しい音をたてるのである。

→《やわらげ-情報提示》(水：104)

- (35) 雫：でも天沢君バイオリン上手だね。そっちへ進むの？

聖司：おれくらいの奴は たくさんいるよ。

それよりおれさ、バイオリンづくりになりたいんだ。

雫：そうかあ。もう、あんなに上手だもんね。

聖司：イタリアのクレモナにバイオリン製作学校があるんだよ。

→《やわらげ-情報提示》

中学をでたら、そこへ行きたいんだ。(耳)

- (36) 従業員：砂金だ！砂金だ！わあっ！

湯婆婆：静かにおし！お客さまがまだおいでなんだよ！→《理由説明》

千！お客さまの邪魔だ、そこを下りな！大戸を開けな！

お帰りだ！(千)

⇒検証法：お客さまがまだおいでだから、静かにおし！

- (37) 「いつか、ある人にこんなことを聞かれたことがあるんだ。例えば、こんな星空や泣けてくるような夕日を一人で見ていたとするだろ。もし愛する人がいたら、その美しさやその時の気持ちをどんなふうに伝えるかって？」

→《やわらげ-先触れ》<sup>29)</sup>(もう：10)

28) 理由説明と状況説明：背景説明—与えられた事態に対する理由や事情を述べるものである。

益岡隆志(1991)『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 p.143

29) 先触れ：「のだ」は先行する文や状況との関連づけを表しましたが、関連づける文が後から出てくる場合があります。この用法を先触れと言います。「のだ」は基本的に先行する文との関

(38) 「その人はこう言ったんだ。自分が変わってゆくことだって。...その夕日を見て、感動して、自分が変わってゆくことだと思ってる」

→ 《やわらげ-先触れ》(もう: 11)

(32)는 껌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용도를 알려주고 있고, (33)은 화자가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대나무 그루터기에 찢렸기 때문임을 나타낸다. (34)~(36)까지는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 같이 《教示》의 세분화에 대한 예문이다. (37)과 (38)은 화자가 들은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의 획득을 준비 하게끔 한다.

### 3.2.3 《強調》

吉田茂晃(1988: 48)는 《強調》를 「聞き手が(一度は聞いていながら)まだ納得していない情報を話し手が再び提出する表現である」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強調》는 청자가 믿지 않거나 납득하지 않는 사항, 현실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함으로써 정보를 제시한다. 또한 화자의 의견을 관철 시키려는 의도에서 사용한다. 《強調》가 가지는 특징은 【표8】과 같다.

【표8】 《強調》와 《やわらげ-強調》의 특징

「ノダ」 기능	《強調》	《やわらげ-強調》
구조	《情報提示》문장 + 「ノダ」	《強調》문장 + 「ノダ」
특징	·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	·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

連づけを表すため、「のだ」を含む文が最初に現れると聞き手/読み手はその文が関連づけられる対象を知ろうとし後続文への関心が高まります。これが先触れの効果です。

庵功雄・高梨信乃・中西久美子・山田敏弘 編(2002)『日本語のハンドブック(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제이앤씨 p.288

	외하면 기능이 변화함 ·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있음	외해도 기능이 변화하지 않음 ·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없음
검증 방법	①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된 부분 발화 의도 파악 ②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 파악 ③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문맥과의 관계 파악 ④ 발화 의도가 변화할 때 「ノダ」를 제외하고 문 앞에 「あなたは信じてい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를 넣거나 문말에 「分かっているでしょう」를 넣어서 앞·뒤 문장이 성립하면 《強調》	문장 자체에 「부사」와 같이 《強調》임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있음

- (39) 「おばあちゃん、あそこのうちの犬の毛、このあいだ金綱に付いていた毛とそっくりだった」  
 ... 「金綱?」  
 ... 「このあいだ、鶏が襲われたときに金綱に付いていたの。薄茶色の…」  
 「いたちの毛も薄茶色ですよ」  
 「違う。わたし、絶対あそこの犬の毛だと思う。あそこの犬が夜中に抜け出して、うちの鶏を襲ったんだ」 → 《強調》(西:137)

⇒確認法：あなたは信じてい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あそこの犬が夜中に抜け出して、うちの鶏を襲った。

- (40) 女 : きゃあああーっ! ま、ますます大きくなってよ!  
 いやだ、あたい食われたくない! 来たよ!  
 父役: 千か、よかった、湯婆婆様ではもう抑えられんのだ。

→ 《やわらげ-強調》(千)

(41) 雫 : 図書室あけてください!

高坂先生 : 図書室?

高坂先生 : 次の開放日まで待てないの?

雫 : みんな読んじゃったんです。市立図書館は今日休みだし。

雫 : わたし休み中に20冊読むって決めたんです。

高坂先生 : 20冊~~~!? 月島はかりにも受験生なんだよ。

ほれ、早くしな。→ 《やわらげ-強調》(耳)

(42) ハク : 湯婆婆様、約束です!

千尋と両親を人間の世界にもどしてください!

湯婆婆 : フン! そう簡単にはいかないよ、世の中には決まりというものがある

んだ! → 《強調》(ハウル)

⇒確認法 : そう簡単にはいかないよ、世の中には決まりというものがある。  
分かっているでしょう。

(39)는 닭장이 망가진 것의 소행이 ‘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40)은 화자가 얘기하는 湯婆婆의 힘을 청자도 알고 있고 그런 湯婆婆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얘기하고 있다. (41)은 학교 선생님인 화자가 수험생인 청자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언급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42)의 청자는 화자의 제자로 규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情報提示」 카테고리 안에 있는 다른 표현들과 《強調》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強調》가 화자가 전하려는 정보에 대해 청자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정보가 청자로 하여금 믿지 못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서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 3.2.4 《主張》의 첨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吉田茂晃(1988 : 48)의 《教示》를 발화 의도에 따라 세분하였다. 하지만, 정보 제시가 단순히 청자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화자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전달할 수도 있다. 때문에 《主張》의 기능으로도 분류되어야 한다. 《情報提示》 《先触れ》 《理由説明》은 《主張》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教示》라는 카테고리로 같이 묶을 수 없다. 《情報提示》 《先触れ》 《理由説明》이 단순 사실의 전달에 초점이 있다면, 《主張》은 화자의 의견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やわらげ》의 성격을 지니는데 특징은 【표9】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9】 《主張》과 《やわらげ-主張》의 특징

「ノダ」 기능	《主張》	《やわらげ-主張》
구조	《情報提示》문장+「ノダ」	《主張》문장 + 「ノ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기능이 변화함</li> <li>· 선행 문맥과 관련성 파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기능이 변화 하지 않음</li> <li>· 선행 문맥과 관련성 파악 필요 없음</li> </ul>
검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한 부분 발화 의도 파악</li> <li>②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 파악</li> <li>③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문맥과의 관계 파악</li> <li>④ 발화 의도가 변화할 때 「ノダ」를 제외하고 문말에 「~こそ」를 넣어서 앞·뒤 문장이</li> </ul>	<p>문장 자체에 「~こそ、~ことはできない」와 같이 《主張》임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있음</p>

(43) 異なる文化圏の間には、いわば集团的なものの見方のずれがある、それぞれの個人も、それぞれの文かも、暗黙のうちに、自分の慣れ親しんでいる視点からのみ、ものを見ようとする。そして、自分の見方こそ標準なのだ、と思ひ込みやすい。→《やわらげ-主張》(コイン：64)

(44) なぜならば<異風景>は人間の意図した風景の上に、鳥たちが体の内側にしまい込んだ夢を重ねて造ったものだからだ。そしてわたしたちのだけ一人も、帰ってきた鳥たちから夢を奪う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る。

→《やわらげ-主張》(鳥：117)

(45) このことと表裏をなすが、我々日本語を母語とする者は、世界を日本語で見ているのである。例えば、虹を我々が七色と見るのは、あの光のスペクトル連続を日本語では七つに区切ってそれぞれに色の名を与えているからにほかならない。

→《主張》(言語：164)

⇒検証法：このことと表裏をなすが、我々日本語を母語とする者こそ、世界を日本語で見ている。

(43)은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4)는 이풍경(異風景)을 만든 새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45)는 문장 자체로는 단순 사실에 지나지 않지만, 문맥과의 관련 속에서 보면 결국 화자의 의견을 나타낸다. 선행 구(句)의 ‘이 사실과 표리를 이루지만’ 이란 표현에서 선행 문맥과 관련 있는 얘기를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3.2.5 《告白》

《告白》에 대한 분류는 吉田茂晃(1988)의 분류와 의견을 같이 한다. 《告白》이라는 것은 화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인의 생각, 감정의 표출, 청자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告白》도 《換言》과 마찬가지로 《やわらげ-告白》이 나타난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표10】과 같다.

【표10】 《告白》과 《やわらげ-告白》의 특징

「ノダ」 기능	《告白》	《やわらげ-告白》
구조	《情報提示》문장 + 「ノダ」	《告白》문장 + 「ノ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기능이 변화함</li> <li>·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기능이 변화하지 않음</li> <li>·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없음</li> </ul>
검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한 부분 발화 의도 파악</li> <li>②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 파악</li> <li>③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문맥과의 관계 파악</li> <li>④ 발화 의도가 변화 할 때 「ノダ」를 제외하고 《告白》임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표현인 「実は、率直に言う」と를 넣어서 앞·뒤 문장이 성립하면 《告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장 자체에 「화자의 감정 표출과 생각」같이 《告白》임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있음</li> </ul>

(46) 「…自慢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僕はその頃から僕自身の世界というものを持っていました。クラスの中で僕くらい沢山本を読んでいた人間は

他に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僕も若かったし、自分ではうまく隠しているつもりでも、たぶんそういうのを自然に鼻にかけて、他人を見下ろしているようなところがあったのだと思います」→《やわらげ-告白》(沈黙：60)

(47) 私は彼の饒舌をうつつに聞いていた。私は別なものを見つめていたのである。燃えるような四つの目を。青く澄んだ人間の子供の目を。

→《告白》(猿：144)

⇒検証法：私は彼の饒舌をうつつに聞いていた。**実は**、私は別なものを見つめていた。

(48) 千：これ、お別れにもらったカード。

ちひろ？……千尋って……私の名だわ！

ハク：湯婆婆は相手の名を奪って支配するんだ。

いつもは千でいて、本当の名前はしっかり隠しておくんだよ。

千：私、もう取られかけてた。千になりかけてたもん。

ハク：名を奪われると、帰り道が分からなくなるんだよ。

(カ)私はどうしても思い出せないんだ。→《やわらげ-告白》

千：ハクの本当の名前？

ハク：でも不思議だね。千尋のことは覚えていた。

お食べ、ご飯を食べてなかったろ？

千：食べたくない……

ハク：(ナ)千尋の元気が出るように呪いをかけて作ったんだ。

お食べ。→《やわらげ-告白》(千)

(46)은 자신의 학창 시절의 얘기를 청자에게 들려주는 장면으로 본인의 자랑, 자만, 타인에 대한 경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47)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듣는 척하면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상황에 대한 고백이다. (48)의 (가)는 자신의 이름은 떠올리려고 해도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본인의 솔직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나)는 상대방이 건강해 졌으면 하는 감정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 3.3 聞手-情報要求

#### 3.3.1 《質問》의 첨가

「のだ」의 형태가 의문문의 형태(「の?/のか」)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質問》의 항목으로도 분류되어야 한다.<sup>30)</sup> 또한 그 《質問》이 스스로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카테고리는 「화자」도 포함한 《自問》의 항목도 필요하게 된다. 《自問》에 대해서는 「話手-情報要求」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質問》은 아래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どう、どこ、なぜ、なに」와 같은 의문사<sup>31)</sup>가 사용된 용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49) 彼は私のわななく胴体を強く抱き、口早いにささやいた。

「驚くなよ。毎日こうなのだ。」

30) 野田春美(1997: 117)는 「質問文」에 대해서 「話し手が、自分にとって不明なことを聞き手に問いかけ、情報の供給を受けようとする文である…質問文に用いられる「のだ」は、必ず「か」を伴うわけではない。「の」「んだ」「んです」といった形で用いられることもある」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31) 疑問詞：疑問、あるいは、不定の物事を表す。 「いつ、だれ、どこ、何」(代名詞) 「幾つ、幾ら、何人」(数詞) 「なぜ、どう、どうして」(副詞) 「どの、どんな」(連体詞)などの総称で、品詞とは別の観点による語群。

日本語教育学会(2002)『日本語教育事典 縮刷版』大修館書店 p.117

「どうなるのだ。みんなおれたちをねらっている。」

山で捕らわれ、この島に着くまでの私の無惨な経歴が思い出され、私はした唇をかみしめた。→《やわらげ-質問》(猿：143)

(50) 「道歩いていると、Kが私の姿を見つけて外に出てきました。どこに行くのだとKは尋ねました」→《やわらげ-質問》(七：156)

(51) カルシファー：ソフィー！ソフィー！消えちゃうよ！

薪をくれなきゃ死んじゃうよー！わ、何するんだ、あー！

落ちる、落ちる！危ないー！(ハウル)

때문에 「ノ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문장이 의문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質問》에서 나타나는 「ノダ」의 역할은 《やわらげ》가 되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 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에 화자는 청자로 하여금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의 말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또한 발화 대상과 발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 《質問》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質問》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면 【표11】과 같다.

【표11】 《やわらげ-質問》의 특징

「ノダ」 기능	《やわらげ-質問》
구조	《質問》문장 + 「ノダ」
특징	·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기능이 변화하지 않음 ·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없음
검증방법	문장 자체에 「의문사」가 나타나서 《質問》임을 알게 해줌

### 3.3.2 《確認》의 카테고리 재분류

吉田茂晃(1988 : 51)는 《確認》을 「聞手に関することがらについて聞手本人の目の前で自ら納得してみせて、そのことを以て聞手への確認ともする表現である。この表現は、表現の在り方としては《発見》と同じであるから、そこに一括してしまってももちろん構わないのであるが、《発見》《再認識》はどちらも聞手を意識しない独白的表現であり、そこがそれらの表現の特徴でもあるようだから、㉔のような表現は《確認》として別扱いにするほうが適當であるかもしれな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發見》《再認識》《確認》은 「話し手が受け止める」의 카테고리에 있는 표현이지만, 《發見》과 《再認識》은 청자를 의식하지 않는 표현이고 《確認》은 청자를 의식한 표현이다. 이처럼 吉田茂晃(1988)는 각각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3개의 기능을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차이점을 반영한 분류라면 《確認》은 「聞手に情報を求める」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야 한다. 즉 《確認》은 상대방에게 사실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청자가 말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다. 《確認》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12】와 같다.

【표12】 《確認》의 특징

「ノダ」 기능	《確認》
구조	《情報提示》문장 + 「ノダ」
특징	·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기능이 변화함 ·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있음
검증 방법	①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한 부분 발화 의도 파악 ②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 했을 때 발화 의도 파악 ③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 했을 때 발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문맥과의 관계 파악 ④ 발화 의도가 변화할 때 「ノダ」를 제외하고 문말에 「~でしょう」

를 넣어 성립하면 《確認》

(52) 바론 : 폰벨트 · 폰 · जिッキンゲン男爵。

私を作った人が そう名づけてくれた。

ハル : だから、バロンね。

バロン : 話は聞かせてもらったよ。

猫の国の連中につきまとわれているんだね。→ 《確認》

ハル : あっ、はい。そうなんです。

車にひかれそうになった猫を助けて、そしたら恩返しに招待すると  
言われて。(猫)

⇒検証法 : 猫の国の連中につきまとわれている。でしょう。

(52)는 화자가 청자의 발화 내용을 납득한 것에 대해 내용 정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 3.3.3 《働き掛け》의 첨가

吉田茂晃(1988 : 49)는 《命令》을 「将来あることがらを聞手をして実現させたいと話し手が考えていることを、他ならぬ聞手に向って指定する表現である」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전달이 꼭 《命令》만 있는 것은 아니다.

(53) 바론 : いぎ、おともつかまつらん。ラピス—ラズリの鉱脈をさがす旅に!

おそれることはない。新月の日は空間がひずむ。

遠いものは大きく、近いものは小さく見えるだけのこと。

とぼう! 上昇気流をつかむのだ。

急がねば! 小惑星が集まってきた。→《働き掛け-命令》(猫)

(54) 湯婆婆 : なにか入りこんでるよ。

男従業員 : 人間ですか。

湯婆婆 : それを調べるんだ。今日はハクがないからね。

→《働き掛け-命令》(千)

(55) ハウル : 追いかけてきた!

ソフィー : えっ?

ハウル : 僕が相手をする。ソフィーはこのまま荒地の城まで飛ぶんだ。

ソフィー : えー? そんなの無理よ!

ハウル : 大丈夫、方向は指輪が教えてくれる。

カルシファーを心の中で呼んでごらん。

→《働き掛け-命令》(ハウル)

(56) マルクル : 死んじゃった?

ソフィー : ううん、大丈夫。……おばあちゃん。

荒地の魔女 : あたしは知らないよ、何にも持ってないよ。

ソフィー : お願い。おばあちゃん。

荒地の魔女 : ……そんなに欲しいのかい?

ソフィ : うん。

荒地の魔女 : 仕方ないね。大事にするんだよ。

→《働き掛け-依頼》(ハウル)

(57) ハル : (独り言で)なんだろ、これ。こんな気分、はじめて。

このまま猫になってもいいかも。えっ?

バロン : だめだ、ハル。自分を見失うんじゃない。

ハル : えっ?

バロン：きみはきみの時間を生きるんだ。前にもそう言っただろ。

→《働き掛け-助言》(耳)

(58)「道を歩いていると、Kが私の姿を見つけて外に出てきました。どこに行くのだとKは尋ねました。私がちょっと海を見に行くんだと答えますと、Kは何も言わずに私のあとをついてきました。Kの家には小さな白い犬がいて、その犬も私たちのあとを追ってついてきました。「ちょっとでも風が吹いてきたら、すぐに家に戻るんだよ」と私が言うと、Kは黙って頷きました」

→《働き掛け-誘い》(七)

(53)~(55)는 《命令》이지만, (56)~(58)은 각각 《依頼》, 《助言》, 《誘い》를 나타낸다. 이처럼 청자에게 행동을 촉구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하나의 카테고리 《働き掛け》로 정의하고자 한다.<sup>32)</sup> 즉 《働き掛け》는 청자에게 화자의 바라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또한 《働き掛け》는 대인 행동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유형은 아래 【표13】과 같다.<sup>33)</sup>

32) 《働き掛け》는 필자의 생각으로 「働き掛け」와 「働き掛ける」의 사전적 의미에서 착안한 용어이다.

· 「働き掛け」：自分から他へ動作をしかけること。

· 「働き掛ける」：相手にこちらの望むような行動を起させるため、積極的に活動する。

新村出 (2008) 『広辞苑 第六版』 岩波書店 p.2258

33) 「待遇表現は、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維持・促進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対人的な配慮が必要になる行動を行う場面で、もともと表現の多様性が生じる。待遇表現の機能が重要になる対人行動には、命令・禁止、依頼、勧め、助言・忠告、誘い、許可求め、申し出などの持ちかけ系の対人行動、承諾・許可や断り・不許可といった応対系の対人行動、感謝や謝罪といった調整系の対人行動などがある」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 (2009) 『現代日本語文法7』 くろしお出版 p.289

【표13】 대인 행동의 유형

持ちかけ系	命令・禁止 依頼 勧め 助言・忠告 誘い 許可求め 申し出
応答系	承諾・許可 断り・不許可
調整系	感謝 謝罪

그 중에서도 「持ちかけ系」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働き掛け》의 유형들이다. 좀 더 자세히 그 성격들을 살펴보면 【표14】와 같다.<sup>34)</sup>

【표14】 「持ちかけ系」의 대인 행동

対人行動	決定権	行為者	典型的表現(非敬語形)
命令・禁止	話し手	聞き手	～しろ、～するな
依頼	聞き手	聞き手	～してくれ
勧め	聞き手	聞き手	～すればいい、～したらどうか
助言・忠告	聞き手	聞き手	～したほうがいい
誘い	聞き手	聞き手・話し手	～しよう、～しないか
許可求め	聞き手	話し手	～してもいいか
申し出	聞き手	話し手	～しようか(してあげようか)

《働き掛け》의 유형은 위의 【표14】에서 살펴본 「持ちかけ系」의 대인 행동을 따른다. 「대인 행동」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결국 발화 의도이고 그 발화 의도에 따라 행위결정자와 행위자가 나뉘어 각각의 유형들을 변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命令》은 청자에게 강제적으로 행위를 지시하는 표현으로 반드시 행위를 해야 하지만, 《依頼、助言》은 청자에게 행위를 지시하기는 하지만,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행위를 할지말지의 결정은 청자 본인에게 맡겨지는 것이다.<sup>35)</sup> 그러나 《依頼》는 행위의 결과가 화자에

34)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 (2009) 『現代日本語文法7』くろしお出版 p.291

35) 「命令・禁止は、聞き手の行為を強制的に指示するもので、行為の決定権は聞き手にはない。一方、依頼、勧め、助言・忠告は、行為の指示の仕方は強制的なものではなく、行為の決定権は聞き手にある」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 (2009) 『現代日本語文法7』くろしお出版 p.290

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助言》은 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두 표현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誘い》는 행동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청자에게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도 함께 동참함을 나타낸다.

이런 관점에서 (53)~(58)을 문맥과 관련지어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기에 그 발화 의도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53) とぼう! 上昇気流をつかむのだ。(命令) → とぼう! 上昇気流をつかめ。

(54) それを調べるんだ。今日はハクがないからね。(命令) → それを調べ。

(55) ソフィーはそのまま荒地の城まで飛ぶんだ。(命令)

→ ソフィーはそのまま荒地の城まで飛べ。

(56) 仕方ないね。大事にするんだよ。(依頼)

→ 仕方ないね。大事にしてくれ。

(57) きみはきみの時間を生きるんだ。前にもそう言っただろ。(助言)

→ きみはきみの時間を生きていったほうがいい。

(58) ちょっとでも風が吹いてきたら、すぐに家に戻るんだよ。(誘い)

→ ちょっとでも風が吹いてきたら、すぐに家に戻ろう。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격을 정리하면 【표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15】 《働き掛け》의 특징

「ノダ」 기능	《働き掛け》
구조	《情報提示》문장 + 「ノダ」
특징	·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기능이 변화함 ·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있음
검증 방법	①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한 부분 발화 의도 파악 ②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 파악

	③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했을 때 발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문맥과의 관계 파악 ④ 발화 의도가 변화할 때 「ノダ」를 제외하고 문말에 각각의 대인행동 표현들을 넣어 성립하면 《働き掛け》 ・《命令》：「～しろ」 ・《依頼》：「～してくれ」 ・《助言》：「～たほうがいい」 ・《誘い》：「～しよう、～しないか」
--	---

하지만 《働き掛け》의 경우 《やわらげ-働き掛け》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청자가 실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やわらげ》의 성격을 붙여버리면, 청자로 하여금 「행동 촉구」의 강도가 낮아짐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働き掛け》의 경우는 《やわらげ》를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名嶋義直(2007: 215~216)는 「命令のノダ文」을 「ある実現可能である行動を発話時(またはそれ以降)において聞き手が遂行することを話し手が話し手にとって望ましいとみなしているという思考を意図的に聞き手に対して提示する」라고 정의하고 있고 「忠告・助言のノダ文」에 대해서는 「ある実現可能である行動を発話時(またはそれ以降)において聞き手が遂行することを話し手が聞き手にとって望ましいとみなしているという思考を意図的に聞き手に対して提示する」라고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두 표현의 차이는 「望ましい」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냐 라는 것인데, 본고에서는 《命令》과 《助言》의 성격으로 名嶋義直(2007)의 의견을 따르고자 한다.

### 3.4 話手-情報提示

#### 3.4.1 《再認識》

吉田茂晃(1988 : 50)는 《再認識》을 「以前知っていてしばらく失念していたことがらを思い起し、再び納得したことの表現であ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의견을 따르고자 한다. 즉 화자 본인의 망각에 대한 정보를 떠올려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재차 그 정보를 이해하게 된 상황까지도 포함한다. 특징을 정리하면 【표16】과 같다.

【표16】 《再認識》의 특징

「ノダ」 기능	《再認識》
구조	《情報提示》문장 + 「ノ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기능이 변화함</li> <li>·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있음</li> </ul>
검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한 부분 발화 의도 파악</li> <li>②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 했을 때 발화 의도 파악</li> <li>③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 했을 때 발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문맥과의 관계 파악</li> <li>④ 발화 의도가 변화할 때 「ノダ」를 제외하고 문말에 「そうだ。～やっぱり」를 넣어 성립하면 《再認識》</li> </ul>

(59) 風の強い日だった。まいが前庭を通りかかったとき、乾いた砂ぼこりが風に舞った。これは修行のひとつなのだ。(西 : 134)

⇒檢証法 : そうだ。これは修行のひとつだ。やっぱり。

(60) マルクル：……いい加減にしてください！怒りますよ！

ソフィー：ここは魔法のうちなんだね。(ハウル)

⇒検証法：そうだ。ここは魔法のうちだ。やっぱり。

(59)는 마녀의 수행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할머니에게서 듣고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험한 것이다. (60)은 마법의 집이라는 것을 화자도 알고 있으면서 집안 여기저기를 다니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다. 또한 《再認識》는 「話手-情報提示」의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기에 독백이나 혼잣말인 경우가 많지만, (60)과 같이 청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 3.4.2 《発見》의 재분류

#### — 《発見》 《気づき》 —

吉田茂晃(1988: 50)는 《発見》을 「新しく知ったことから納得したことの表現である」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성격을 분리할 수 있다. 하나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으로 처음부터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다. 또 하나는 화자의 의지 없이 주변 상황에 의해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이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発見》이라 분류하고 후자를 《気づき》라 하겠다.<sup>36)</sup> 이 기능들의 성격을 정리하면 【표17】과 같다.

36) 《発見》과 《気づき》의 정의는 사전을 참고로 하였다.

· 《発見》：まだ知られていなかったものを、はじめて見つけ出すこと。

新村出 (2008) 『広辞苑 第六版』 岩波書店 p.2266

· 《気づき》：気が付くこと。

· 「気が付く」：ぼんやりした状態、意識を失った状態から正気に戻る。

新村出 (2008) 『広辞苑 第六版』 岩波書店 p.688

【표17】 《発見》과 《気づき》의 특징

「ノダ」 기능	《発見》	《気づき》
구조	《情報提示》문장 + 「ノダ」	
특징	・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기능이 변화함 ・ 선행 문맥과 관련성 파악 필요	
검증 방법	①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 한 부분 발화 의도 파악 ②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 했을 때 발화 의도 파악 ③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 했을 때 발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문맥과의 관계 파악 ④ 발화 의도가 변화할 때 「ノダ」 를 제외하고 문말에 「とうとう分 かった」를 넣어서 문장이 성립하면 《発見》	①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 한 부분 발화 의도 파악 ②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 했을 때 발화 의도 파악 ③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 했을 때 발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문맥과의 관계 파악 ④ 발화 의도가 변화할 때 「ノダ」 를 제외하고 문말에 「ふっと気づいた」 를 넣어서 문장이 성립하면 《気づき》

(61) 「おばあちゃんっ」血相を変えたまいの様子に、畑にいたおばあちゃんは急いで戻ってきた。

「どうしたんです?」

… 「魔女修行のこと、忘れましたか、まい」

… 「そんなに動揺してどうしますか。まるで殺されかけたような顔をして」

… 「でも、どんなことがあったって、わたしがあの人を嫌だと思ふ気持ちは抑えようがないわ」

… 「ゲンジさんは竹の子を掘っているんだと言ったんでしょう。だったらそれでいいじゃありませんか」 → 《発見》(西：168)

⇒検証法：ゲンジさんは竹の子を掘っている。とうとう分かった。

(62) 「…でも自分の拳が彼の頬骨に触れた瞬間から、僕は相手を殴ったことを後悔しました。こんなことをしても何の役にも立たないのだと僕は一瞬にして悟りました。僕はまだずっと怒りに体を震わせていました。でも自分が馬鹿なことをしたのだということはよくかわっていました。」 → 《気づき》(沈黙：63)

⇒検証法：でも自分が馬鹿なことをした。ふっと気づいた。

(63) 雫：(本を見ながら) この人、牢屋でバイオリン作っているんだ。

→ 《気づき》(耳)

⇒検証法：この人、牢屋でバイオリン作っている。ふっと気づいた。

(61)은 《発見》으로 화자가 닭장이 망가지고 닭이 죽은 사건이 있은 이후 계속해서 누구의 소행인지를 찾고 있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62)와 (63)은 《気づき》로 각각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알아차림’ ‘책을 통해 알아차린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発見》과 《気づき》는 독백이거나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64)와 (65)처럼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청자는 의식하지 않고 혼잣말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64) 雫：ムーンはきみんちの猫じゃないの？

男学生：あいつをひきとめるのはムリだよ。よその家でお玉ってよばれてるのを見たことあるんだ。ほかにもきつと名前があるよ。

雫：フーン、渡り歩いているんだ。

そうかァ! ムーンは電車で通勤しているのね! → 《発見》(耳)

⇒検証法：フーン、渡り歩いている。とうとう分かった。

(65) バロン：いや、ムタはいろいろ言いはするが内心まんざらでもないタイプなん

だ。

ムタ : ふん!

ハル : そっか。ほんとはいい人なんだ。→ 《気づき》(猫)

⇒檢証法：ほんとはいい人だ。ふっと気づいた。

(64)의 화자는 함께 전철을 타고 온 고양이가 어디 사는지, 왜 전철을 타고 오는지 궁금해 한다. 그런데 청자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까지 온 상황에서 청자에게 들은 정보에 의해 그 궁금증을 해결하게 된다. (65)는 청자의 얘기를 듣고 제3자의 성격을 알게 된 상황이다.

### 3.5 話手-情報要求

#### 3.5.1 《自問》의 첨가

《自問》은 「聞手-情報要求」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質問》의 또 다른 카테고리 「話手-情報要求」라는 범주에서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이 기능 역시 문장 속에 질문임을 알 수 있는 요소인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自問》도 《質問》과 마찬가지로 《やわらげ》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표현은 의문사를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빌어 사태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표현이다. 《自問》의 성격을 정리하면 【표18】과 같다.

【표18】 《やわらげ-自問》의 특징

「ノダ」	《やわらげ-自問》
기능	
구조	《自問》문장 + 「ノダ」

특징	· 「ノダ」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기능이 변화하지 않음 ·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없음
검증 방법	· 문장 자체에 「의문사」와 함께 《自問》임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있음

(66) 今まで感じたことのないようなへんな気分が、わき出てくるではないか。辺りの喧噪が、すーっと遠のき、シンとしてしまった。友達の姿は確かにあそこにあるのに現実感がない。豆粒のようにチラチラしているだけだ。(なんだなんだ、いったいどうなっちゃったのだ!) → 《自問》(じたばた：20)

(67) バロン：こっちへ行こう。一つ一つ道を潰して行くしかない。  
絶えず塔を見るんだ。方角を見失わないです。  
ハル：そっか。あっ! ムタさん、ずるい。  
ムタ：正直に迷ってやるこたないぜ。  
兵士：いたぞ!  
ムタ：へ? なんで、こうなるんだ! → 《自問-독백》(猫)

(66)은 눈앞의 깜빡거리는 현상에 대해 왜 그런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의아스럽고 당혹한 감정을 나타낸다. (67)은 병사들이 쫓아오는 장면에서 화자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

### 3.5.2 《決意》의 카테고리 재분류

吉田茂晃(1988：49)는 《決意》를 「話手自らが或ることがらを将来実現させようと考えていることを聞手に伝える表現である」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決意》는 반드시 청자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決意》라고 하는 것이 꼭 청자가 있어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野田春美(1997 : 99)는 《決意》를 「「のだ」は「決意」と呼ばれることがあるが、話し手がすでに決意していたことをあらためて自分自身に言い聞かせたり聞き手に示したりするときに用いられるものである」라고 정의한다. 즉 《決意》는 청자에게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스스로에게 타 이르거나 자신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사용한다. 결국 청자라는 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화자라는 카테고리에서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吉田茂晃(1988)가 정의내린 《決意》는 「話手-行動要求」의 카테고리로 분류 되어야 하고 《決意》의 성격 중에서 청자에게 자신의 결심을 제시하는 기능은 결국 화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이기에 《告白》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決意》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19】와 같다.

【표19】 《決意》의 특징

「のだ」 기능	《決意》
구조	《情報提示》문장 + 「の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のだ」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기능이 변화함</li> <li>· 선행 문맥을 파악할 필요 있음</li> </ul>
검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のだ」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한 부분 발화 의도 파악</li> <li>② 「のだ」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 했을 때 발화 의도 파악</li> <li>③ 「のだ」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 했을 때 발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문맥과의 관계 파악</li> <li>④ 발화 의도가 변화할 때 「のだ」를 제외하고 「~(よう)」를 넣어서 앞·뒤 문장이 성립하면 《決意》</li> </ul>

(68) ようやく想像力の翼がそこまで達すると、まいは何だか重い気分になってくる。自分がされたことよりも、自分のしたことの方が、はるかに許しを請うべきことのように思えて。思い切って、今度おばあちゃんに会ったら、こういうこ

とを全部話してみよう。手の内を全部見せて、おばあちゃんに委ねるのだ。

→ 《決意》(西 : 183)

⇒ 検証法 : 手の内を全部見せて、おばあちゃんに委ねよう。

(68)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맡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名嶋義直(2007 : 216) 역시 「ノダ」의 기능으로 《決意》를 주장한다. 그는 「「決意のノダ文」は、ある実現可能である行動を発話時(またはそれ以降)において話し手が遂行することを話し手が話し手にとって望ましいとみなしているという思考を意図的に聞き手に対して提示する」라고 《決意》를 정의 한다. 吉田茂晃(1988) 보다는 좀 더 구체화 되어 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용례를 다시 살펴보면, (68)은 화자가 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워지자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 놓고 결과를 맡겨버림으로써 화자의 무거워진 마음의 해소와 허락을 구하고자 한다.

### 3.6 그 밖의 기능 : 《客体化》와 《整調》

吉田茂晃(1988)는 「のだ」의 특수한 기능으로 《客体化》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客体化》는 「인칭제한」이라는 특수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시한 기능이다. 일본어에서는 감정이나 사고와 같은 사람의 심적(心的)상태를 나타내는 문(文)에 있어서 인칭제한이 있다.

小山敦子(1966 : 73~75)는 감정형용사가 주어로 제3자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면서 이 제약이 문 말에 「のだ」가 붙거나, 연체수식이 선행할 경우에는 주어로서 제3자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69)와 같이 「ようだ、そうだ、らしい、はずだ」와 같은 「모달리티」 표현과 접

속할 때에도 인칭제한은 해제(解除)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69) a. 「その時太郎は、どんなだった？」

b. 「うん、水が {欲しかったらしい/ 欲しかったようだ/ 欲しいようだった}  
」(金水 1989 : 122)

이 관점에서 보면 「のだ」가 「인칭제한」을 해제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이러한 이유로 吉田茂晃(1988)은 「のだ」를 《客体化》로 제시하고 있지만, 《客体化》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문의 소지는 있다. 《客体化》라는 것은 형태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상의 문제이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서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시점(視点)과 관련이 있고 회화문이나 지문이나에 따라 시점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 설정이 없으면 「인칭제한」은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칭제한의 해제」 역할을 하는 「のだ」 기능을 《客体化》로 인정하지만, 이 기능이 「의미론적 의미·기능」이 아니라 「본질적 의미·기능」에서의 《やわらげ》로 본다. 제한을 두었던 것이 표현의 부가로 사용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곧 「표현상의 완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론적 의미·기능」의 분류에서는 배제한다.

또한, 吉田茂晃(1988)가 특수한 형태로 분류한 《整調-文章の調子を整える》역시 《客体化》와 마찬가지로 「본질적 의미·기능」의 범주에서 살펴보아야 할 기능이라 생각하기에 이 또한 배제한다.

### 3.7 기능별 비교

지금까지 吉田茂晃(1988)의 「のだ」에 대한 기능을 재분류하였다. 그러나

분류상에서 서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 각각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情報提示》는 《告白》과 관련성이 있다. 두 표현은 모두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情報提示》는 단순히 「청자가 모르는 사항에 대한 전달」에 초점이 있다면, 《告白》는 「화자만이 판단 가능한 사항」에 초점이 있다.

(18) 千尋 : あの、名前ってここですか？

湯婆婆 : そうだよ。もぐずぐずしないでさっさと書きな！

まったく……つまらない誓いをたてちまったもんだよ。

はたらきたい者には仕事をやるんだなんて……書いたかい？

→ 《情報提示》(千)

⇒檢証法 : つまらない誓いをたてちまったもんだ。実ははたらき者は仕事をやる。(×)

(47) 私は彼の饒舌をうつつに聞いていた。私は別なものを見つめていたのである。燃えるような四つの目を。青く澄んだ人間の子供の目を。

→ 《告白》(猿 : 144)

⇒檢証法 : 私は彼の饒舌をうつつに聞いていた。実は、私は別なものを見つめていた。(○)

(18)과 (47)은 각각 규칙 제공과 상황을 나타내는 《情報提示》이다. 하지만 그 정보가 화자밖에 판단 할 수 없는 정보인지, 단순 정보의 제시인지에 따라 발화 의도가 달라지게 된다. 두 기능의 차이는 《告白》의 검증방법 「実は、率直に言うと」을 이용해서 발화 의도를 확인 할 수 있

다. (18)의 경우 정해진 규칙에 대한 정보를 숨겨진 사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규칙이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을 정해 놓은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하는 것이지 숨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告白》과 《主張》역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告白》은 화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생각·감정 표출로 청자로 하여금 판단의 여지가 없지만, 《主張》은 어디까지나 화자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는 기능으로 청자로 하여금 판단의 여지가 있다.

(44) このことと表裏をなすが、我々日本語を母語とする者は、世界を日本語で見ているのである。→《主張》(言語：164)

(47) 私は彼の饒舌をうつつに聞いていた。私は別なものを見つめていたのである。燃えるような四つの目を。青く澄んだ人間の子供の目を。

→《告白》(猿：144)

(44)는 청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고, (47)은 화자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主張》과 《強調》도 차이가 있다. 두 표현 모두 「자신의 의견 표출」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主張》는 화자 자신만의 생각으로 화자 본인만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強調》는 정보는 이미 화자와 청자가 모두 가지고 있다.

(42) ハク　：湯婆婆様、約束です！

千尋と両親を人間の世界にもどしてください！

湯婆婆：フン！そう簡単にはいかないよ、世の中には決まりというものがある

んだ! → 《強調》(ハウル)

(45) このことと表裏をなすが、我々日本語を母語とする者は、世界を日本語で見ているのである。 → 《主張》(言語：164)

(42)는 《強調》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세상의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다. 청자가 규칙에 어긋난 사항을 요구하자 화자가 다시 한번 세상의 규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다. (45)는 《主張》으로 화자만의 의견이고 청자는 화자의 발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発見》과 《気づき》의 경우는 양자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만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를 획득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획득의 초점이 다르다. 《発見》은 화자가 처음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찾아 나선 결과물이고, 《気づき》는 청자의 의도가 전혀 없는 우연에 의해 얻게 된 결과물이다.

(61) … 「ゲンジさんは竹の子を掘っているんだと言ったんでしょう。だったらそれでいいじゃありませんか」 → 《発見》(沈黙：168)

(62) 「…でも自分の拳が彼の頬骨に触れた瞬間から、僕は相手を殴ったことを後悔しました。こんなことをしても何の役にも立たないのだと僕は一瞬にして悟りました。僕はまだずっと怒りに体を震わせていました。でも自分が馬鹿なことをしたのだということはよくかわっていました。」 → 《気づき》(沈黙：63)

(61)은 화자가 답장을 망친 범인을 찾고 있던 중 의심 가는 한 사람을 찾은 상황이고, (62)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순간 본인의 행동

이 잘못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는 장면이다.

또한 《発見》과 《きづき》는 화자의 의지 유무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再認識》과 혼동할 수도 있지만, 《再認識》의 중점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에 있다.

(59) 風の強い日だった。まいが前庭を通りかかったとき、乾いた砂ぼこりが風に舞った。これは修行のひとつなのだ。→ 《再認識》(西：134)

(59)의 화자는 이미 마녀 수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聞手に情報を求める」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質問》과 《確認》에 대해 살펴보겠다. 《質問》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실을 묻는 것이라면, 《確認》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납득했다는 의미로 동의를 구하는 간접표현이다.

(50) 「道を歩いていると、Kが私の姿を見つけて外に出てきました。どこに行くのだとKは尋ねました」→ 《やわらげ-質問》(七：156)

(52) バロン：フンベルト・フォン・ジッキンゲン男爵。

私を作った人が そう名づけてくれた。

ハル：だから、バロンね。

バロン：話は聞かせてもらったよ。

猫の国の連中につきまとわれているんだね。→ 《確認》

ハル：あっ、はい。そうなんです。(猫)

(50)은 청자에게 장소를 물어 보는 장면이고, (52)는 화자가 들은 내용에

대해 청자에게 다시 확인 하는 장면이다.

이상의 차이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20】 과 같다.

【표20】 「ノダ」의 기능 비교

		공통점	차이점
情報提示   聞手	情報提示	정보 제시	聞手が 모르는 사항에 대한 전달에 초점
	告白		話手만이 판단 가능한 사항에 초점
	告白	話手 자신의 생각·의견	聞수로 하여금 판단의 여지가 없음
	主張		聞수로 하여금 판단의 여지가 있음
	主張	話手 자신의 의견	話手만 가진 정보
	強調		話手와 聞手が 정보를 공유
情報提示   話手	發見	새로운 정보의 획득	話手の 정보 획득에 대한 의도성 있음
	気づき		話手の 정보 획득에 대한 의도성 없음
	發見、気づき	정보에 대한 납득	새로운 정보
	再認識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
情報要求   聞手	質問	정보 요구	사실여부의 직접 판단 요구
	確認		동의를 구하는 간접표현

## 4. 吉田茂晃 분류와 비교

### 4.1 吉田茂晃 예문의 문제점

기능 재분류에서 살펴보았듯이 吉田茂晃(1988)가 제시한 예문과 재분류한 기능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그 예문들을 「발화 의도」에 맞게 다시 분류해 보고자 한다.

① 皮膚が荒れているのはビタミンが不足しているのだ。

→ 《やわらげ-情報提示》(吉田茂晃: 47)

② 太陽の光は、水素が核融合反応を起しているのだ。

→ 《やわらげ-情報提示》(吉田茂晃: 48)

①과 ②는 각각 ‘피부가 거친 이유’ ‘태양 빛의 역할’에 대한 단순 정보의 제시이다. 따라서 《やわらげ-情報提示》에 해당한다.

③ ごめんなさい、ガラスを割ったのは僕なんです。

→ 《やわらげ-告白》(吉田茂晃: 48)

④ 止めないでくれ、わたしだって幸いのだ。

→ 《やわらげ-告白》(吉田茂晃: 48)

③과 ④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ノダ」를 제외한 원 문장에 자신의 생각임이 들어나고 있기에 《やわらげ-告白》이

된다.

⑤ お月様ではねえ、ウサギさんがおモチをついているんだ。

→ 《やわらげ-情報提示》 / 《強調》 (吉田茂晃 : 48)

⑤의 경우는 제시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상황’ 이라면 《やわらげ-情報提示》가 되지만, 화자가 믿고 있는 전설 중에 ‘달에 토끼가 떡을 찧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상황’ 이라면 《強調》가 된다.

⑥ 御覧ください。この工程はすべてコンピュータによって制御されているのです。

→ 《やわらげ-情報提示》 (吉田茂晃 : 48)

⑥은 공정에 대한 정보제시이다.

⑦ 信じてくれ、俺は確かにUFOを見たのだ。

→ 《やわらげ-強調》 (吉田茂晃 : 48)

⑦은 청자가 믿지 않는 사실에 대해 재차 얘기함으로써 믿게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다.

⑧ 評論家が何と言おうとこの映画は面白いんだ。

→ 《やわらげ-主張》 / 《やわらげ-強調》 (吉田茂晃 : 48)

⑧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 영화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장면이다. 이

또한 만일 청자가 영화를 본 상황이라면, 《やわらげ-強調》가 된다.

⑨ それでも、私はこれを成し遂げるのだ。

→ 《やわらげ-告白》(吉田茂晃: 49)

⑩ 俺は行くぞ。行くと言ったら行くんだ。→ 《やわらげ-告白》(吉田茂晃: 49)

⑨와 ⑩은 자신의 결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⑪ 立て、立て! 立つんだ、ジョー! → 《働き掛け-命令》(吉田茂晃: 49)

⑫ 危ないから、僕が合図をするまでじっとしているんだ。

→ 《働き掛け-命令》/ 《働き掛け-助言》(吉田茂晃: 49)

⑪과 ⑫는 청자에게 직접 행동을 하도록 하는 표현이다. 그 행동에 대한 이득은 청자인 본인이 된다. 물론 ⑪의 경우는 「立つんだ」만 보면 《働き掛け-助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 문맥의 「立て」로 인해 자연스럽게 뒷문장은 《働き掛け-命令》이 되는 것이다. ⑫의 경우도 선행 문맥이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 《働き掛け》의 강도는 달라져 《命令》이 될 수도 《助言》이 될 수도 있다.

⑬ (辞書を調べて) そうか、「知音」というのは、「親友」のことなんだ。

→ 《気づき》(吉田茂晃: 50)

⑭ ははあ、あいつめ自分だけ逃げるつもりなんだ。

→ 《発見》/ 《気づき》(吉田茂晃: 50)

⑬은 그 장소에서 사전을 보고 확인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이기에 《気づ

き》가 된다. 하지만 ⑰은 상황 설정이나 선행 문맥이 없으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만약 ‘몇 일 동안 상대의 행동을 보니 무언가 수상했고 수상한 점을 찾으려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도망갈 어떤 준비를 해 놓은 것을 본 장면’에 대한 발화라면 《発見》이 되지만, ‘같이 도망가고 있는 도중에 화자가 넘어졌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상대방을 본 장면’에 대한 발화라면 《気づき》가 될 것이다.

⑱ しまった! 銀将は真横へは進めないんだ。

→ 《気づき》 / 《再認識》 (吉田茂晃 : 50)

⑲도 역시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먼저 장기를 두다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깨달았다면 《気づき》가 되지만, 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고 혹은 장기에 대한 규칙을 잘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었다가 다시 생각난 상황이라면 《再認識》이 될 것이다.

⑲ すっかり忘れてたなあ。あいつは阪神ファンなんだ。

→ 《再認識》 (吉田茂晃 : 50)

⑲는 잊고 있었던 상황의 인식이다. 「ノダ」를 제외한 원 문장은 《情報提示》이지만, 선행 문맥과의 관련성에서 확인해 보면 《再認識》임을 알 수 있다.

⑳ へえー、じゃあキミはひとりっこなんだ。

→ 《確認》 / 《気づき》 (吉田茂晃 : 51)

⑳의 경우 원 문장은 《情報提示》이지만, 선행 구(句)「へえー」에 의해 《確認》임이 명백해진다. 하지만 이것 역시 청자가 알려준 정보에 의해 처음 알게 된 사항의 납득이라면 《気づき》가 된다.

㉑ あー、そうなんだ。→ 《発見》 / 《再認識》 (吉田茂晃 : 51)

㉑은 상황에 따라 기능의 카테고리는 달라진다. ‘화자가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라면 《発見》이 될 것이다. 또한 ‘화자 본인이 잊고 있었던 사실을 어떤 상황에 의해 다시 이해하게 된 장면’이라면 《再認識》이 될 것이다.

㉒ 或いは、「合意とは一九〇五年の『保護条約』を指す」と主張するかもしれない。だがそれこそ事実誤認なのである。

→ 《やわらげ-主張》 (吉田茂晃 : 51)

㉓ あの人だって悲しいのよ。→ 《やわらげ-情報提示》 (吉田茂晃 : 51)

㉒와 ㉓은 각각 《主張》과 《情報提示》로 재분류할 수 있다. ㉒의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는 장면이고, ㉓은 제3자의 감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장면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황이 주위 지지 않으면, 발화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즉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단문장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선행 문맥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21】과 같다.

【표21】 吉田茂晃 예문의 재분류

吉田茂晃(1988) 예문	吉田茂晃 (1988) 기능	기능의 재분류
① 皮膚が荒れているのはビタミンが不足している <u>のだ</u> 。	《換言》	《やわらげ-情報提示》
② 太陽の光は、水素が核融合反応を起している <u>のだ</u> 。	《換言》	《やわらげ-情報提示》
③ ごめんなさい、ガラスを割ったのは僕な <u>んです</u> 。	《告白》	《やわらげ-告白》
④ 止めないでくれ、わたしだって幸い <u>のだ</u> 。	《告白》	《やわらげ-告白》
⑤ お月様ではねえ、ウサギさんがおモチについている <u>んだ</u> 。	《情報提示》	《やわらげ-情報提示》 《強調》
⑥ 御覧ください。この工程はすべてコンピュータによって制御されている <u>のです</u> 。	《情報提示》	《やわらげ-情報提示》
⑦ 信じてくれ、俺は確かにUFOを見た <u>のだ</u> 。	《強調》	《強調》
⑧ 評論家が何と言おうとこの映画は面白い <u>んだ</u> 。	《強調》	《主張》 《強調》
⑨ それでも、私はこれを成し遂げる <u>のだ</u> 。	《決意》	《告白》
⑩ 俺は行くぞ。行くと言ったら行く <u>んだ</u> 。	《決意》	《告白》
⑪ 立て、立て! 立つ <u>んだ</u> 、ジョー!	《命令》	《働き掛け-命令》
⑫ 危ないから、僕が合図をするまでじっとしている <u>んだ</u> 。	《命令》	《働き掛け-命令》 《働き掛け-助言》
⑬ (辞書を調べて) そうか、「知音」というのは、“親友”のこと <u>なんだ</u> 。	《発見》	《気づき》
⑭ ははあ、あいつめ自分だけ逃げるつもり <u>なんだ</u> 。	《発見》	《発見》 《気づき》
⑮ しまった! 銀将は真横へは進めない <u>んだ</u> 。	《再認識》	《気づき》 《再認識》
⑯ すっかり忘れてたなあ。あいつは阪神ファン <u>なんだ</u> 。	《再認識》	《再認識》
⑰ へー、じゃあキミはひとり <u>っこ</u> なんだ。	《確認》	《確認》 《気づき》
⑱ あー、そう <u>なんだ</u> 。	《確認》	《発見》 《再認識》

② 或いは、「合意とは一九〇五年の『保護条約』を指す」と主張するかもしれない。だがそれこそ <u>事実誤認</u> なのである。	《整調》	《主張》
③ あの <u>人</u> だって <u>悲しい</u> のよ。	《客体化》	《情報提示》

## 4.2 吉田茂晃 분류와 차이점

이상 「ノダ」의 기능을 발화 주체인 화자의 입장에서 발화 의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吉田茂晃(1988)가 제시한 예문들을 재분류해 봄으로써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데 형식상의 규정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도 확인하였다. 吉田茂晃(1988)와 재분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표22】와 같다.

【표22】 吉田茂晃 분류와 비교

吉田茂晃				재분류				
				발화 의도		대상	주체	
二句一文			《換言》	《換言》	客觀的	情報提示	聞手	話手
一句一文	聞手	情報提示	《教示》	《やわらげ-換言》				
			《強調》	《やわらげ-情報提示》				
				《やわらげ-先觸れ》				
				《理由説明》				
		《告白》	《やわらげ-理由説明》	主觀的				
《強調》								
《やわらげ-強調》								
行動	·	《告白》	《主張》	客情				
		《やわらげ-告白》						
		《やわらげ-質問》						

	要求	・	《確認》	觀 的 主 觀 的	報 要 求	話 手
		《決意》	・			
		《命令》	《働き掛け》			
	受け とめ	《再認識》	《再認識》	客 觀 的	情 報 提 示	
		・	《気づき》			
		《発見》	《発見》			
		《確認》	・			
		・	《やわらげ-自問》	客 觀 的	情 報 要 求	
	・	《決意》	主 觀 的			
	その他の 特殊なもの	《整調》	・			
《客体化》		・				

본고의 재분류는 발화 주체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화하느냐에 초점이 있다. 그 의도는 크게 「情報提示」와 「情報要求」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하위분류로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客觀的」과 「主觀的」으로 카테고리화 하였다. 또한 각각의 기능들 중에서 표현상의 《やわらげ》를 분류함으로써 「발화 의도」의 세분화를 제시하였다.

재분류한 기능의 성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情報有無」 「情報類型」 「相手有無」로 세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情報有無」는 발화를 받아들이는 청자의 입장에서 발화에 대한 정보 유무를 살펴본 것이고, 「情報類型」은 청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성격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나이다. 그 정보의 성격은 「新情報(新情報)」와 「旧情報(旧情報)」로 나눈다. 또한 청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新情報」가 된다. 「相手有

無」는 발화 장면에서 「相手」가 필요한지 어떤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기능들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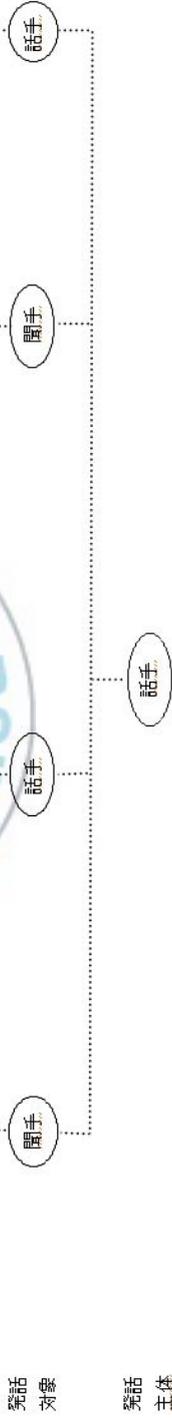
【표23】 기능의 재분류

「/ㄹ」의 기능

「/ㄹ」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기능이 변화 하는 것

「/ㄹ」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기능이 변화하지 않는 것

발話 意圖 詳細 情報 有無 情報 類型 相手 有無	先行·後行文脈の確認が必要										
	(1)	(2)	(3)	(4)	(5)	(6)	(7)	(8)	(9)	(10)	(11)
換言	有無	理由 說明	強調	主張	告白	確認	懸掛 掛け	再 認識	氣 づき	發見	決意
情報 提示	有無	無	有無	無	有無	有無	有無	有無	無	無	有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客觀的	客觀的	主觀的	主觀的	主觀的	客觀的	客觀的	主觀的	客觀的	客觀的	客觀的	主觀的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要求	情報要求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要求
換言	換言	理由 說明	強調	主張	告白	先 觸 れ	理由 說明	強調	主張	告白	質問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客觀的	客觀的	主觀的	主觀的	主觀的	客觀的	客觀的	主觀的	客觀的	客觀的	客觀的	客觀的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要求	情報要求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要求
換言	換言	理由 說明	強調	主張	告白	質問	質問	質問	質問	質問	質問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新× 旧○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客觀的	客觀的	主觀的	主觀的	主觀的	客觀的	客觀的	主觀的	客觀的	客觀的	客觀的	客觀的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要求	情報要求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提示	情報要求



## 5. 프로트타이프론<sup>37)</sup>의 입장에서 본 「ノダ」

지금까지 「ノダ」의 기능을 어용론적 입장에서 발화 의도에 초점을 두고 재분류하였다. 재분류한 기능은 총 12개이다. 여기에 《やわらげ》에만 나타나는 성격까지 포함하면 모두 14개이다. 吉田茂晃(1988)의 분류와 개수상의 차이는 없지만, 분류한 기준이 다르고 의미상 정의도 조금씩 다르다.

본고에서는 吉田茂晃(1988)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외에도 「ノダ」의 기능에 대해 살펴본 연구자들은 많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ノダ」의 기능을 분류했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애당초 ‘기능’이란 용어 자체가 추상성이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재분류 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지만 추상성이 높은 용어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차이점을 제시했다 해도 그 용어 정의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 문제는 늘 남아 있다. 그래서 단순히 기능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들이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치 관계가 파악되면 기능들 간의 유사성에서 오는 혼동이 없어지고 기능들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분류한 14개의 기능은 유사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다. 《主張》과 《強調》의 경우 청자의 정보 유무가 큰 기준이 되고, 《発見》과 《気づき》의 경우는 화자의 의지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 그런데 ‘정보의 유무’ 혹은

---

37) 프로타입理論：言語学・認知心理学上の概念で、人間が実際にもつカテゴリーは、必要十分条件によって規定される古典的カテゴリーではなく、典型事例とそれとの類似性によって特徴づけられるという考え方であり、このようなカテゴリーをプロトタイプ的カテゴリーと呼ぶ。認知言語学の基本的なテーゼのひとつである。

「ウィキペディア フリー百科事典」<http://www.ja.wikipedia.org/>

‘화자의 의지’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강도를 어디에 맞춰서 표현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이 기능들은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단계성을 지닌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격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러한 기능들은 각각이 독립된 개별체가 아니라 하나의 선상에 놓여진 연속체이다. 그렇기에 의미영역의 공통점이 생기고 서로 맞물려서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ノダ」의 어떤 성격이 기능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5.1 문의 구조 내부에서 본 「ノダ」의 위치

일본어 문장은 「명제(命題)」와 「모달리티(モダリティ)」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명제(命題)」는 문장이 전하는 사항의 내용을 담당하며 일명 ‘언표사태(言表事態)’라고 한다. 「모달리티(モダリティ)」는 그 문장의 서술 방식을 담당하는 표현으로 ‘언표태도(言表態度)’라고 한다.<sup>38)</sup> 또한 「모달리티(モダリティ)」는 크게 4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것은 『現代日本語文法4』<sup>39)</sup>에서 제시한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文の伝達的な表し分けを表すもの →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 叙述、疑問、意志、勧誘、行為要求、感嘆

(나) 命題が表す事態のとらえ方を表すもの

┌ 評価のモダリティ： 必要、不必要、許容、不許容

└ 認識のモダリティ： 断定·推量、可能性·必然性、推定·伝聞

(다) 文と先行文脈との関係づけを表すもの

38)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2003) 『現代日本語文法4』 くろしお出版 p.1

39)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2003) 『現代日本語文法4』 くろしお出版 pp.4~11

→ 説明のモダリティ: 「のだ」・「わけだ」

(라) 聞き手に対する伝え方を表すもの=伝達のモダリティ

└ 丁寧さのモダリティ: 普通体、丁寧体

└ 伝達態度のモダリティ: 終助詞

이것에 따르면 「ノダ」는 설명의 모달리티가 된다. 하지만 앞의 선행 연구와 기능의 재분류에서 살펴보았듯이 ‘설명’으로만 제시하기에는 「ノダ」의 기능이 다양하다. 그렇다면 다른 모달리티와의 관계 속에서 「ノダ」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문장의 기본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표현유형에 따라 위에 제시한 4가지의 성격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24】와 같다.<sup>40)</sup>

【표24】 모달리티의 상호 관계

			評価	認識	説明	丁寧さ	伝達態度
表現 類型	情報系	叙述	○	○	○	○	○
		疑問	○	△	○	○	○
	行為系	意志	×	×	×	○	△
		勧誘	×	×	×	○	○
		行為要求	×	×	×	△	○
	感嘆	×	×	×	△	○	

※ ○ : 모달리티가 분화할 수 있는 것

× : 모달리티가 분화할 수 없는 것

△ : 모달리티 분화의 유보(留保)나 예외 표현이 있는 것

위의 설명에 따르면 「ノダ」의 성격이 정보와 관련된 표현만 있을 뿐 행동과 관련된 표현으로는 분화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기능의 재분류에서

40)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2003) 『現代日本語文法4』 くろしお出版 pp.7~8

살펴보았듯이 「ノダ」의 기능에 ‘의지’와 관련 있는 《告白》 《決意》, ‘권유’나 ‘행동요구’와 관련 있는 《働き掛け》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관점도 사실상 「ノ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된다.

仁田義雄(1991 : 18~19)는 「〈言表事態〉とは、話し手が、現実との関わりにおいて、描き取った一片の世界、文の意味内容のうち客体的な出来事や事柄を表した部分である。…言表態度を形成するのがモダリティと丁寧さである」라고 정의하면서문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모달리티의 하위분류로써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言表事態めあてのモダリティ)와 발화·전달의 모달리티(発話・伝達のモダリティ)로 나누고 있다. 이것의 성격을 살펴보면 아래 【표25】와 같다.

【표25】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와 발화·전달의 모달리티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	발화·전달의 모달리티
의미	발화시 화자의 「 <b>언표사태에 대한 파악</b> 」의 표현법	발화시 「 <b>화자의 발화·전달적 태도</b> 」의 표현법
특징	「발화시」나 「화자의 입장」이라는 조건·특징이 결부된 표현도 있음	「발화시」와 「화자의 입장」이라는 조건·특징은 반드시 지켜짐
종류	~だろう	~ね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는 문장의 서술 방식을 나타내는 모달리티이지만 언표사태에 가까운 객관적 표현이다. 그리고 발화·전달의 모달리티는 화자의 전달적 태도에 대한 표현으로 모달리티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화·전달의 모달리티를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살펴보고 있다. 각각의 유형의 성격은 【표26】과 같다.

【표26】 발화·전달의 모달리티

종류	성격	특징
働き掛け	命令、誘い掛け	발화·전달의 모달리티 성격이 강함
表出	意志・希望、願望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 성격이 강함
述べ立て	現象描写文、判断文	
問いかけ	判断の問いかけ、情意・意向の問いかけ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짐

발화·전달의 모달리티 역시 표현 유형이 가지는 성격에 따라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와 발화·전달의 모달리티는 양분된 것이 아니라 성격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자에도 후자에도 속할 수 있다.

『現代日本語文法4』에서 살펴본 모달리티의 종류가 仁田義雄(1991)의 모달리티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現代日本語文法4』에서 제시한 모달리티 유형 4가지를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와 발화·전달의 모달리티로 나눠보면, 정보계에서만 나타나는 <평가의 모달리티>, <인식의 모달리티>, <설명의 모달리티>는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에 속하고 정보계와 행동계에서 모두 나타나는 <정중의 모달리티>, <전달태도의 모달리티>는 발화·전달의 모달리티에 속한다. 하지만, <설명의 모달리티>에 속하는 「ノダ」는 기능의 재분류에서도 확인했듯이 행동계의 성격도 지닌다. 따라서 「ノダ」는 어느 한쪽의 유형에 종속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 혹은 발화·전달의 모달리티에 유동적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문의 구조인 언표사태와 언표태도의 관계, 그 속에서 「ノダ」의 위치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1】 문의 구조 내부에서 본 「ノダ」의 위치



## 5.2 모달리티 내부에서 본 「ノダ」기능의 위치

지금까지 「ノダ」가 문의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ノダ」가 가지는 성격에 따라 언표사태 목표 혹은 발화·전달에 유동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재분류한 「ノダ」의 기능이 어떤 성격에 따라 양자의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세분한 14개의 기능을 크게 나누면 <정보제시>와 <정보요구>로 나눌 수 있다. <정보제시>와 <정보요구>는 앞서 모달리티의 유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보계에 해당하는 유형은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행동계에 해당하는 유형은 발화·전달의 모달리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와 발화·전달의 모달리티의 성격을 초점으로 화자가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객관적 태도>와 <주관적 태도>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태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이고, 주관적 태도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발화·전달의 모달리티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27】과 같다.



【표28】 모달리티 내부에서 본 「ノダ」 기능의 위치

모달리티 성격		언표 사태 목표의 모달리티 성격			
		객관적태도	정보제시	화자→청자	기능의 특징
발화 의도 ↑ 발화 의도 ↓ 발화·전달	情報提示	O	O	O	· 단순 정보 제시 · 선행 문맥과의 독립성
	先触れ	O	O	O	· 단순 정보 제시 · 청자의 주의 환기
	理由説明	O	O	O	· 선행 문맥과 관련
	換言	O	O	O	· 좀 더 쉬운 정보 제시
	再認識	O	O	X	· 구정보
	気づき	O	O	X	· 신정보 · 정보 획득의 유연성
	発見	O	O	X	· 신정보 · 정보 획득의 의도성
	確認	O	X	O	· 화자와 청자 정보 공유
	質問	O	X	O	· 청자만 가진 정보 · 화자→청자
	自問	O	X	X	· 화자만 가진 정보
	強調	X	O	O	· 화자와 청자 정보 공유 · 청자 판단 가능
	主張	X	O	O	· 화자만 가진 정보 · 청자 판단 가능
	告白	X	O	O	· 화자만 가진 정보 · 청자 판단 불가능
	働き掛け	X	X	O	·
	決意	X	X	X	·

O	X
언표사태 목표의 모달리티	발화·전달의 모달리티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객관적 태도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
정보 제시	정보 요구
화자→청자	화자→화자

### Ⅲ. 결론

「ノダ」가 「이유 설명」 「강조」 「부드러운 표현」 이외에 어떠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 모달리티의 내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능의 재분류로 가장 구체화 되었다고 인정하는 吉田茂晃(1988)의 「표현구조」 11개를 「발화 의도」에 초점을 두고 《やわらげ》까지 포함해서 총 14개로 재분류하였다. 때문에 吉田茂晃(1988) 분류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형태상 규정」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능들이 과연 「ノダ」만이 가진 기능인가, 이 기능들 이외에는 나타낼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용례 수집 범위를 정해 놓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범위가 더 넓었다면 분명 다른 기능들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화 의도」라는 것이 화자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발화를 하느냐에 따라 표현은 달라질 수 있기에 분명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분류한 기능들은 「ノダ」가 가진 기능이라고 하기 보다는 「ノダ」가 나타낼 수 있는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재분류를 통해 발견한 특징이 「ノダ」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상에 놓여있는 연속체라는 사실이다. 「설명의 모달리티」의 성격을 지닌 「ノダ」는 「정보계」이외에 「행동계」의 성격도 지닐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모달리티」의 내부에서도 「언표사태」에 초점이 있느냐 「발화·전달」에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졌다. 따라서 「ノダ」의 기능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정보제시」뿐만 아니라 「정보요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보요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써 이후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능 재분류를 통해 얻은 또 한 가지는 《やわらげ》라는 새로운 기능의 발견으로 어용론적 입장에서 문장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난다. 이것을 통해서 처음 의문을 가졌던 「부드러운 표현」에 대한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 《やわらげ》의 정확한 정의와 특징을 찾지는 못했지만, 「ノダ」본질 연구에 밑바탕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또한 《やわらげ》의 성질 중에서 「정보제시」의 기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ノダ」를 「설명의 모달리티」라고 명명하거나, 「ノダ」의 기능을 「설명」이라 파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하지만 「ノダ」의 기능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것을 「노다」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다. 본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분명 「노다」는 다양한 성격으로 사용되었고 그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본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향후 첫 과제로 「노다」의 기능으로 제시한 「정보요구」와 「노다」의 성격으로 제시한 《やわらげ》의 명확한 정의와 기능들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나아가서는 「노다」의 본질이 《やわらげ》라 가정하고 기능 속에서 치환 가능했던 표현들과 「노다」가 사용된 문장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활용 패턴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노다」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본질의 증명에 힘 쓸 것이다.

## 【참 고 문 헌】

- 庵功雄・高梨信乃・中西久実子・山田敏弘 編 (2002) 『日本語のハンドブック (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 제이앤씨
- 金水敏 (1989) 「「報告」についての覚書」 『日本語の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 久野暲 (197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 KekidzeTatiana (2003) 「現代日本語の「やわらげ」-非断定的表「そうだ」、  
「げ」、「っぽい」を中心に-」 『言葉と文化』 4号 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  
言語文化研究科日本語文化専攻
- 国立国語研究所 (1951) 『国立国語研究報告3 現代語の助詞・助動詞一用法と実  
例一』 秀英出版
- 小山敦子 (1966) 「『の』『が』『は』の使い分けについて一展成文法理論の日本語への適用  
一」 『国語学』 66
- 近藤安月子 (2002) 「会話に現れる「ノダ」一「談話連結ご」の視点から一」 『シ  
リーズ言語科学5 日本語学と言語教育』 東京大学出版会
- 佐治圭三 (1972) 「「ことだ」と「のだ」一形式名詞と準体助詞一(その二) 『日本語・日本  
文化』 3 大阪外国語大学研究留学生別科 (『日本語の文法研究』 ひつじ書房 1991  
所収)
- 新村出 (2008) 『広辞苑 第六版』 岩波書店
- 田野村忠温 (1990) 『現代日本語の文法 I 一「ノダ」の機能と用法一』 和泉書院
- 寺村秀夫 (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I』 くろしお出版
- 名嶋義直 (2005) 「ノダは「説明のモダリティ」か」 日本語教育研究集会  
—— (2007) 『日本語研究叢書19 ノダの意味・機能一関連性理論の観点から  
一』 くろしお出版
- 仁田義雄 (1991)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 ひつじ書房

- (1992) 「判断から発話・伝達へ-伝聞・婉曲の表現を中心に-」 『日本語教育』 77号 日本語教育学会
-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編 (2003) 『現代日本語文法4』 くろしお出版
- (2009) 『現代日本語文法5』 くろしお出版
- (2009) 『現代日本語文法7』 くろしお出版
- 日本語教育学会 (2002) 『日本語教育事典 縮刷版』 大修館書店
- 野田春美 (1997) 『日本語研究叢書9 「の(だ)」 の機能』 くろしお出版
- 飛田良文 主幹 (2007) 『日本語学研究事典』 明治書院
- 藤城浩子 (2007) 「ノダによる「強調」「やわらげ」の内実」 『日本語文法』 7-2  
日本語文法学会
- 益岡隆志 (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 松岡弘 (1987) 「『の(だ)』 の文・『わけだ』 の文に関する一考察」 『言語文化』 24  
一橋大学語学研究室
- 吉田茂晃 (1988) 「ノダ形式の構造と表現効果」 『国文論叢15』 神戸大学文学部国語国文学会

## 【참 고 자 료】

ウィキペディア フリー百科事典 (<http://www.ja.wikipedia.org>)

## 【용례출전】

- 言語：柴田武 ほか(2003)「言語は色眼鏡である」『(新編)国語総合』三省党
- コイン：柴田武 ほか(2003)「コインは円形か」『(新編)国語総合』三省党
- 猿：柴田武 ほか(2003)「猿が島」『(新編)国語総合』三省党
- じたばた：柴田武 ほか(2003)「「じたばた」のもとは何だったのか」『(新編)国語総合』三省党
- 千：「千と千尋の神隠し」『シナリオ』
- 沈黙：村上春樹(2011)「沈黙」『レキシントンの 幽霊』文芸春秋
- 鳥：柴田武 ほか(2003)「鳥のいる〈異風景〉」『(新編)国語総合』三省党
- ナガサキ：柴田武 ほか(2003)「ナガサキの郵便配達」『(新編)国語総合』三省党
- 七：村上春樹(2011)『レキシントンの 幽霊』 「七番目の男」
- 西：梨木香歩(2011)『西の魔女が死んだ』新潮文庫
- 猫：「猫の恩返し」『シナリオ』
- ハウル：「ハウルの動く城」『シナリオ』
- 文型：砂川有里子 ほか(1998)『(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
- 水：柴田武 ほか(2003)「水の東西」『(新編)国語総合』三省党
- 耳：「耳をすまぜば」『シナリオ』
- もう：柴田武 ほか(2003)「もう一つの時間」『(新編)国語総合』三省党
- 羅：柴田武 ほか(2003)「羅生門」『(新編)国語総合』三省党